

# 제주관광 이슈포커스

JEJU TOURISM  
ISSUE FOCUS



VOL. 11 (2019.12)

## 신용카드 매출액 Big-Data 분석 4 : 2018년 제주방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 ○ 목 차

- I. 2018년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분석
- II.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심층 분석
- III.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심층 분석
- IV. 면세점 제외 소매업 매출 비교 분석
- V.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GIS 분석
- VI. 요약 및 시사점
- [부록] 주요 관광통계



제주관광산업 신용카드 매출액 Big-Data 분석 4 :  
2018년 제주방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제주관광산업 분석결과를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수립과 관광업계 수익향상을 위한 마케팅 근거자료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2017년부터 「제주관광산업 매출구조 분석」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신용카드 전체 사용 추계액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세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다. 이번 분석은 네 번째로, 「2018년 제주방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을 다룬다. 이번 분석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제주관광산업 카드 매출액 분석,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심층 분석,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심층 분석, 면세점 제외 소매업 매출 비교 분석,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GIS 분석 등이다. 분석 대상연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로, 이전 분석결과를 따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본 분석결과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분석결과, 2018년 카드 매출액은 3조 6,420억원으로 추계되어 2017년 3조 6,490억원보다 약 70억원 감소하였다. 내국인은 2조 8,44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0억원(4.5%) 감소하였으나, 외국인은 1,260억원(18.9%) 증가하여 내국인 감소분을 외국인 증가분으로 상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카드 매출액은, 소매업 1조 5,070억원, 숙박업 2,880억원, 음식점업 7,600억원, 운수업 8,970억원, 여가·스포츠·레저업 1,130억원, 기타업 770억원이었다. 이용지역별로는 제주시 동·서부와 서귀포시 서부가 새롭게 각광 받는 지역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도심과 동부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었다. 외국인 권역별로는 동남아 시장의 카드 소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속에 북미와 유럽이 매력 있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세점을 제외할 경우 소매업 카드 소비액은, 내국인의 경우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면세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지역별 GIS 분석에서, 내국인의 카드 소비는 읍면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사드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동지역에 국한되고 있다. 특히, 내국인의 음식점업 카드 소비를 중심으로 읍면지역이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분석자료

- 분석자료는 신한카드의 제주지역 카드 거래자료를 기초로, 한국은행, 여신협회 등의 추가 자료를 활용하여 제주지역 전체 신용카드 소비액을 추계한 자료임. 자료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개년이고, 도민/관광객, 주말/비주말, 성, 연령, 이용지역(읍면동), 거주지역(시도), 국적 등의 추가 정보를 제공함
- 자료수 : 12,552,835개 (내국인) 11,849,042개, (외국인) 703,793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내국인 (도민제외)	940,374 (94.8)	1,116,005 (94.6)	1,407,832 (94.5)	1,771,341 (95.0)	2,013,016 (94.6)	2,259,964 (94.6)	2,340,510 (93.3)	11,849,042 (94.4)
외국인	52,042 (5.2)	63,485 (5.4)	82,766 (5.5)	92,735 (5.0)	115,354 (5.4)	128,305 (5.4)	169,106 (6.7)	703,793 (5.6)
합계	992,416 (100.0)	1,179,490 (100.0)	1,490,598 (100.0)	1,864,076 (100.0)	2,128,370 (100.0)	2,388,269 (100.0)	2,509,616 (100.0)	12,552,835 (100.0)

## I 2018년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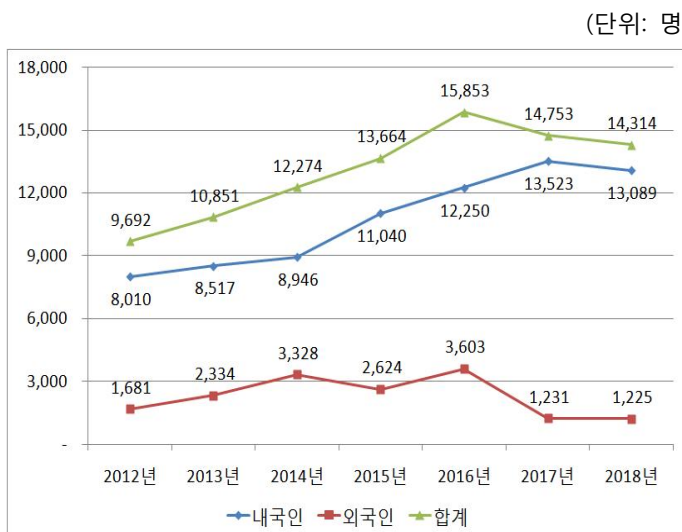
### 1-1. 연도별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분석

<표1-1> 연도별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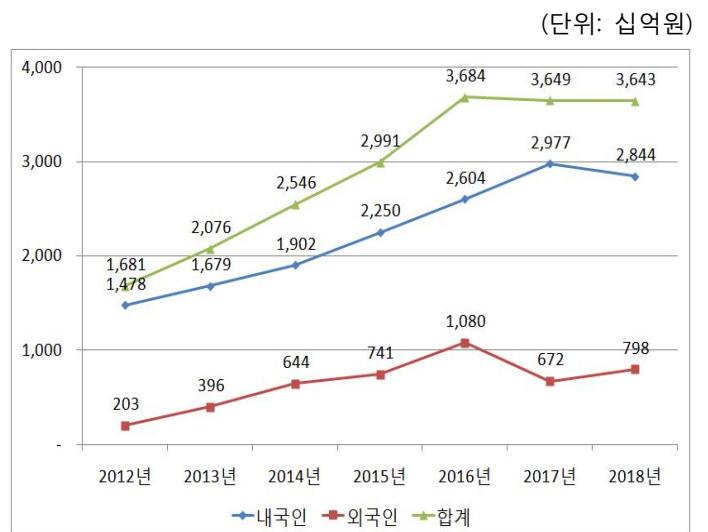
구 분	매출액(10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상대비율(%)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2012년	1,681	1,478	203	-	-	-	87.9	12.1
2013년	2,076	1,679	396	23.5	13.6	95.4	80.9	19.1
2014년	2,546	1,902	644	22.7	13.3	62.5	74.7	25.3
2015년	2,991	2,250	741	17.5	18.3	15.1	75.2	24.8
2016년	3,684	2,604	1,080	23.2	15.7	45.7	70.7	29.3
2017년	3,649	2,977	672	-1.0	14.3	-37.8	81.6	18.4
2018년	3,642	2,844	798	-0.2	-4.5	18.9	78.1	21.9

- 2018년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은 3조 6,420억원으로 추계되어, 2017년 3조 6,490억원보다 약 70억원 감소하였음. 전년대비 증가율로 비교할 경우, 0.2% 감소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내·외국인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2조 8,44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0억원(4.5%)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1,260억원(18.9%) 증가하여, 내국인 감소분을 외국인 증가분으로 상쇄시켰음
- 2018년 내국인 관광객에 의한 카드매출액은 2조 8,440억원,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카드매출액은 7,980억원으로 내·외국인 매출기여율 상대비는 78.1 대 21.9로 나타남. 2018년 내국인 매출기여율은 2017년의 81.6보다 약 3.5 떨어진 수치로, 동기간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

<그림1-1> 연도별 제주입도 관광객 수와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추세



[제주입도 관광객 수 추세]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추세]

- 2018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이후 최저치지만, 관광객 1인당 카드매출액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의 제주입도 관광객 추세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233만명, 2014년 322만명, 2015년 262만명으로 2018년의 122만명보다 적게는 1.9배에서 많게는 2.6배 수준이나, 외국인 카드 매출액은 2018년의 7,980억원보다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사드이후, 2017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1/3 수준으로 급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카드매출액은 2/3수준을 유지하였고, 2018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과 동일한 122만명이었으나, 카드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하였음

## 1-2. 업종별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분석

### (1) 제주관광산업 분류체계

- 제주관광산업 분류체계는 「제주관광산업 조수입 추계」(제주관광공사, [www.ijto.or.kr](http://www.ijto.or.kr))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여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기타업의 6개 대분류 항목으로 구분하였고, 각 대분류에 해당하는 세부 산업은 <표1-2>와 같음

<표 1-2> 제주관광산업 분류체계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운수업	예술·스포츠·여가업	기타업
종합소매업(면세점포함), 음식료품 및 담배 소비업, 차량용 연료 소매업, 예술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호텔, 기타	일반음식점업, 기타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	육상여객운송업, 해상여객운송업, 항공여객운송업, 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박물관, 테마파크 등, 오락장 운영업, 수상오락 서비스업, 캠블링 및 배팅업(카지노), 그 외 기타오락관련, 골프장 운영업	렌터카, 여행사업, 이미용업, 욕탕 및 마사지업 등

## (2)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액 현황

- 2018년 제주관광산업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액은, 소매업 1조 5,070억원, 숙박업 2,880억원, 음식점업 7,600억원, 운수업 8,970억원, 여가·스포츠·레저업 1,130억원, 기타업 770억원으로 나타남. 업종별 비중은, 소매업 41.4%, 숙박업 8.0%, 음식점업 20.9%, 운수업 24.6%, 여가·스포츠·레저업 3.1%, 기타업 2.0%임

<표 1-3> 2018년 제주관광산업 업종별 카드매출액 현황

구 분	매출액(10억원)				상대비율(%)	
	소계	(비율)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1. 소매업	1,507	(41.4%)	917	590	60.8	39.2
2. 숙박업	288	(8.0%)	212	76	73.7	26.3
3. 음식점업	760	(20.9%)	723	37	95.1	4.9
4. 운수업	897	(24.6%)	817	80	91.1	8.9
5. 여가스포츠레저업	113	(3.1%)	102	11	90.1	9.9
6. 기타업	77	(2.0%)	73	4	94.6	5.4
합계	3,642	(100.0%)	2,844	798	78.1	21.9



- 내·외국인 상대 비율은 소매업 60.8 대 39.2, 숙박업 73.7 대 26.3, 음식점업 95.1 대 4.9, 운수업 91.1 대 8.9, 여가·스포츠·레저업 90.1 대 9.9, 기타업 94.6 대 5.4로 나타나, 소매업, 숙박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카드매출액에서 내국인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1-4> 연도별 제주관광산업 업종별 카드매출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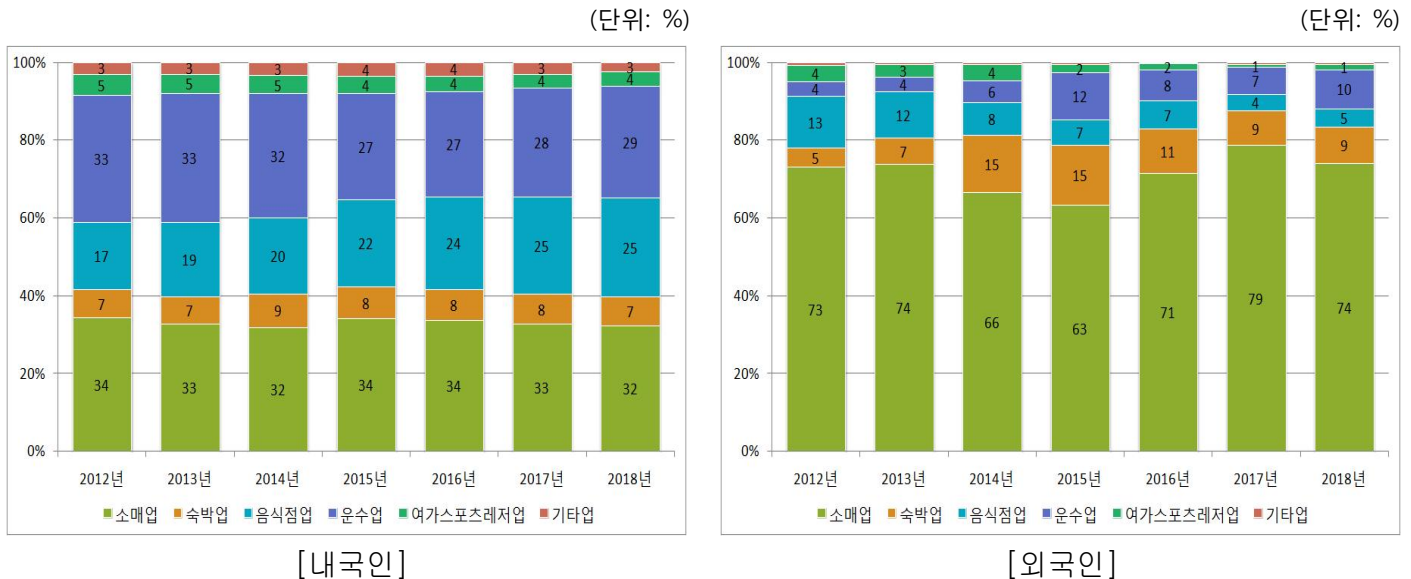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구분	1.소매업			2.숙박업			3.음식점업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2012년	657	509	148	114	105	10	284	257	27
2013년	839	547	292	147	120	27	367	319	48
2014년	1,033	604	428	260	165	96	427	373	54
2015년	1,238	769	469	295	182	113	551	502	49
2016년	1,650	878	772	329	205	124	695	617	78
2017년	1,500	973	528	287	228	60	776	747	29
2018년	1,507	917	590	288	212	76	760	723	37

구분	4.운수업			5.여가·스포츠·레저업			6.기타업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2012년	489	482	8	89	80	8	48	46	2
2013년	574	559	15	94	82	13	55	52	3
2014년	640	605	36	117	90	27	70	65	4
2015년	706	616	90	114	98	16	87	83	4
2016년	791	706	85	123	105	17	96	92	5
2017년	879	833	46	111	106	5	94	91	4
2018년	897	817	80	113	102	11	77	73	4

- 다음으로 2012년 대비 2018년 제주관광산업 업종별 카드매출액 성장규모를 살펴보기로 함. 소매업은 6,570억원에서 1조 5,070억원으로 약 2.3배 성장하였고, 내국인은 5,090억원에서 9,170억원으로 약 1.8배 성장한 반면, 외국인은 1,480억원에서 5,900억원으로 약 4배 신장하였음. 숙박업은 1,140억원에서 2,880억원으로 약 2.5배 성장하였고, 내국인은 1,050억원에서 2,120억원으로 약 2배 성장한 반면, 외국인은 100억원에서 760억원으로 약 7.6배 신장하였음. 음식점업은 2,840억원에서 7,600억원으로 약 2.7배 성장하였고, 내국인은 2,570억원에서 7,230억원으로 약 2.8배 성장한 반면, 외국인은 270억원에서 370억원으로 약 1.4배 더디게 성장하였음. 운수업은 4,890억원에서 8,970억원으로 약 1.8배 성장하였고, 내국인은 4,820억원에서 8,170억원으로 약 1.7배 성장한 반면, 외국인은 8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약 10배 신장하였음. 여가·스포츠·레저업은 890억원에서 1,130억원으로 약 1.3배 성장하였고, 내국인은 800억원에서 1,020억원으로 약 1.3배, 외국인은 8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약 1.4배 성장하였음. 기타업은 480억원에서 770억원으로 약 1.6배 성장하였고, 내국인은 약 1.6배, 외국인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약 2배 성장함
- 내국인은 모든 업종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카드매출액이 증가하다가, 2018년에 감소세로 돌아섬. 외국인 카드매출액은 운수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2016년에 정점을 찍고, 2017년 소매업과 기타업을 제외한 업종에서 절반이하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2018년에 다시 회복세로 전환함

<그림 1-2> 연도별 · 업종별 카드매출 비율 추세



- 내국인의 업종별 카드매출 비율은, 2012년 소매업 34%, 운수업 33%, 음식점업 17%, 숙박업 7%의 비율에서, 2018년 소매업 32%(2%감소), 운수업 29%(4%감소), 음식점업 25%(8%증가), 숙박업 7%로, 소매업 운수업 비율이 줄고, 음식점업 비율이 증가하였음. 음식점업 비율은 2014년 20%를 넘은 이후로,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고 있음
- 외국인의 업종별 카드매출 비율은, 2012년 소매업 73%, 음식점업 13%, 숙박업 5%, 운수업 4%에서, 2018년 소매업 74%(1%증가), 음식점업 5%(8%감소), 숙박업 9%(4%증가), 운수업 10%(6%)로, 음식점업 비율이 줄고, 숙박업, 운수업 비율이 증가하였음. 숙박업은 2014년, 2015년 15%로 최대치를 달성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소매업 비중이 증가하였음. 음식점업의 경우, 2012년 13%에서 매년 꾸준히 줄어 2017년 4%까지 하락하였다가, 2018년에 5%로 소폭 회복세로 돌아섬

### 1-3. 휴일구분에 따른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분석

<표 1-5> 휴일구분에 따른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현황

(단위 : 십억원)

구 분	총괄			내국인			외국인		
	소계	평일	휴일	소계	평일	휴일	소계	평일	휴일
2012년	1,681	1,152	529	1,478	1,016	462	203	136	67
2013년	2,076	1,416	660	1,679	1,154	526	396	262	134
2014년	2,546	1,708	839	1,902	1,288	614	644	420	225
2015년	2,991	2,005	986	2,250	1,523	727	741	482	259
2016년	3,684	2,446	1,238	2,604	1,746	858	1,080	701	380
2017년	3,649	2,406	1,243	2,977	1,977	1,000	672	429	243
2018년	3,642	2,420	1,222	2,844	1,893	951	798	527	271

\* 휴일은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선거일을 모두 포함

-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 선거일을 포함하여 휴일로 구분하고,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주중을 평일로 구분하여 제주관광산업 신용카드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는 <표1-5>와 같음. <표1-6>에서 평일과 휴일의 카드매출액 상대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 총괄 평일 기준, 최저 65.9%에서 최고 68.5%로 67% 내외를 기록함. <표1-5>의 총괄에서 매출액이 2012년 1조 6,810억원에서 2018년 3조 6,42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동안, 평일과 휴일의 카드 매출액 비중은 67%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큰 변화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1-6> 휴일구분에 따른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 비율

(단위 : %)

구 분	총괄		내국인		외국인	
	평일	휴일	평일	휴일	평일	휴일
2012년	68.5	31.5	68.7	31.3	67.2	32.8
2013년	68.2	31.8	68.7	31.3	66.1	33.9
2014년	67.1	32.9	67.7	32.3	65.1	34.9
2015년	67.0	33.0	67.7	32.3	65.0	35.0
2016년	66.4	33.6	67.0	33.0	64.9	35.1
2017년	65.9	34.1	66.4	33.6	63.8	36.2
2018년	66.5	33.6	66.6	33.4	66.0	34.0

\* 휴일은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선거일을 모두 포함

- 내·외국인의 평일과 휴일 카드매출액 비율을 비교하면, 외국인의 휴일 카드매출액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내국인의 평일 카드매출비율은 최저 66.6%에서 최고 68.7%로 67.5% 내외이고, 휴일 카드매출비율은 최저 31.3%에서 최고 33.6%로 32.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의 경우, 평일 카드매출비율은 최저 63.8%에서 최고 67.2%로 66% 내외이고, 휴일 카드매출비율은 최저 32.8%에서 최고 36.2%로 34% 내외인 것으로 나타남

<표1-7> 연도별 휴일일수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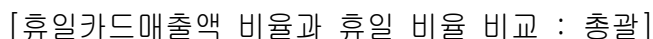
구 분	평일/휴일일수(일)			상대비율(%)	
	소계	평일	휴일	평일	휴일
2012년	366	250	116	68.3	31.7
2013년	365	249	116	68.2	31.8
2014년	365	247	118	67.7	32.3
2015년	365	251	114	68.8	31.2
2016년	366	249	117	68.0	32.0
2017년	365	247	118	67.7	32.3
2018년	365	246	119	67.4	32.6

\* 휴일은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선거일을 모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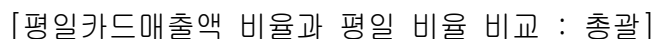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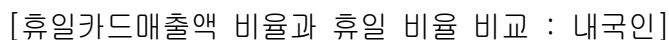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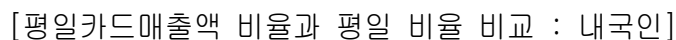
(단위: %)



(단위: %)



(단위: %)



## II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심층 분석

### 2-1. 연령대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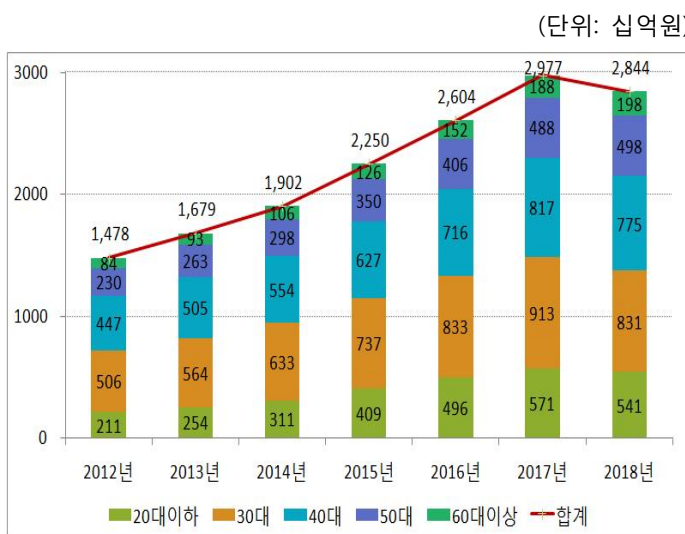
- 2018년 내국인 관광객의 카드소비는 30대가 8,310억원, 40대가 7,750억원, 20대가 5,410억원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비율로 계산하면 30대가 29.2%, 40대가 27.3%, 20대가 19.0%로 이 세 연령대의 합이 전체의 75.5%를 차지함. 그러나, 2017년과 비교할 때, 20대 비율은 0.2% 감소, 30대 비율은 1.5% 감소, 40대 비율은 0.1% 각각 감소한 반면, 50대 비율은 1.1%증가, 60대 이상 비율은 0.7% 증가하였음

<표2-1> 연령대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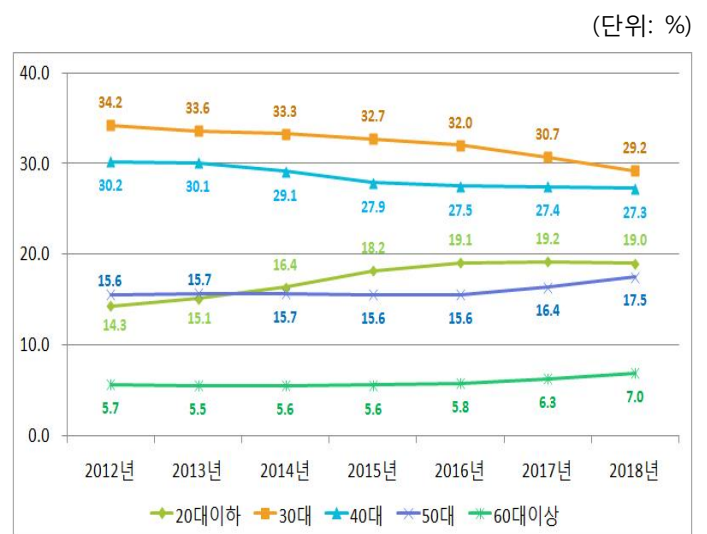
구 분	신용카드 소비액(10억원)							신용카드 소비 비중(열비율,%)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대 이하	211	254	311	409	496	571	541	14.3	15.1	16.4	18.2	19.1	19.2	19.0
30 대	506	564	633	737	833	913	831	34.2	33.6	33.3	32.7	32.0	30.7	29.2
40 대	447	505	554	627	716	817	775	30.2	30.1	29.1	27.9	27.5	27.4	27.3
50 대	230	263	298	350	406	488	498	15.6	15.7	15.7	15.6	15.6	16.4	17.5
60대 이상	84	93	106	126	152	188	198	5.7	5.5	5.6	5.6	5.8	6.3	7.0
합 계	1,478	1,679	1,902	2,250	2,604	2,977	2,8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그림2-1>의 신용카드 소비액 추세를 보면, 카드소비액은 2012년 1조 4,780억원에서 2017년 2조 9,770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2018년에 2조 8,440억원으로 다소 감소함. 20대이하, 30대, 40대 역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카드매출액이 각각 증가하다가 2018년에 소폭 감소하는 동일한 추세를 보임. 그러나 50대와 60대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하는 특징을 보임

<그림2-1> 연령대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추세



[신용카드 소비액]



[신용카드 소비 비중]

- 9

- 성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을 연령대에 따라 비교하면, 특정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카드소비를 보이기도 함. <표2-2>에서 2018년 20대 이하의 카드소비액의 경우, 남성이 2,500억원 이나, 여성은 2,910억원으로 카드소비액이 남성보다 약 1.2배 높음. 20대 이하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카드소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2-2> 성별 · 연령대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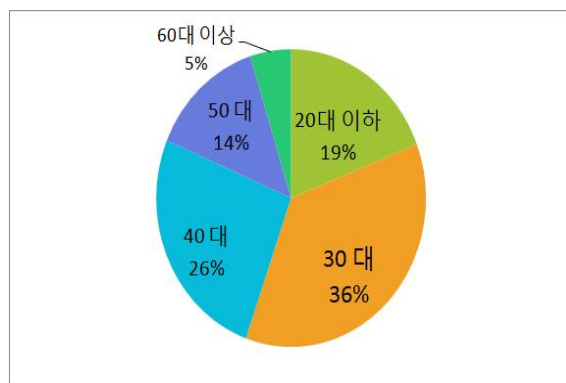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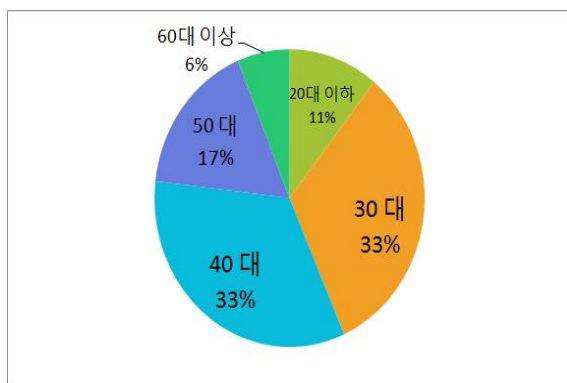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구 분	남성							여성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20대 이하	91	111	140	192	241	271	250	121	142	171	218	255	301	291
30 대	276	302	337	391	447	488	441	230	262	296	345	386	426	391
40 대	283	317	340	380	427	478	446	164	188	214	247	289	338	329
50 대	143	167	186	215	246	294	294	87	96	112	135	160	194	204
60대 이상	53	59	67	78	93	114	119	31	34	39	48	59	74	79
합 계	846	956	1,069	1,256	1,454	1,645	1,550	632	724	833	994	1,150	1,332	1,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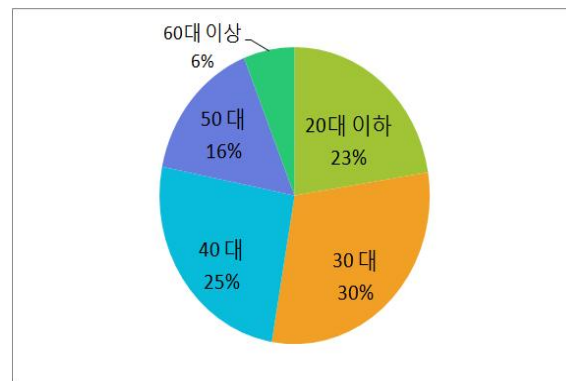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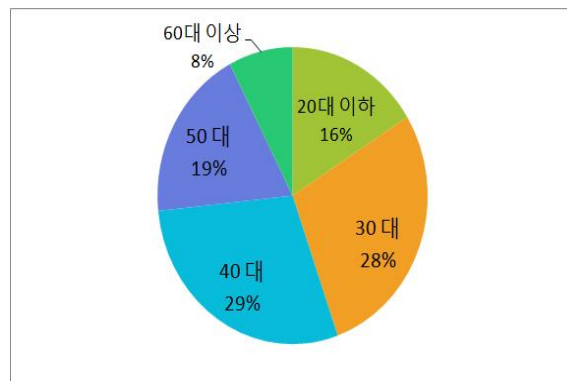
- <그림2-3>을 살펴보면, 남성은 2012년 대비 2018년 30대의 비율이 33%에서 28%로, 40대의 비율이 33%에서 29%로 감소하였고, 여성은 30대의 비율이 36%에서 30%로 감소하였으나, 40대는 25~26%로 동일한 비율을 보임. 20대 이하의 경우, 남성은 11%에서 16%로 증가하였고, 여성 역시 19%에서 23%로 증가하였음

<그림2-3> 성별 · 연령대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비율 변화

2012년



2018년



[남성]

[여성]



- 내국인 관광객 성별 카드소비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카드소비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가운데,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카드 소비를 하고 있음. 둘째, 남성과 여성 모두 30대의 카드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20대 이하의 카드 소비비중이 늘고 있음. 이는 연령대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임. 셋째, 남성은 40대의 카드 소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여성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이를 종합할 때,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는 여성의 카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고, 결혼 후 가족단위의 여행을 주로 하게 되는 30대부터는 남성의 카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음

## 2-3. 거주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 거주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는, 2018년 기준 서울 8,020억원(28.2%), 경기 7,860억원(27.6%), 인천 1,870억원(6.6%), 부산 1,460억원(5.1%), 경남 1,290억원(4.5%), 대구 1,100억원(3.9%)의 순으로, 1,000억원 이상 카드 소비지역은, 제주 제외 16개 시도에서, 6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지역의 카드소비 비중 62.4%를 차지함
- 2017년과 비교할 때, 카드소비액이 감소하지 않은 지역은 광주(850억원→860억원), 전남(740억원→740억원), 울산(580억원→610억원), 세종(150억원→1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2018년 내국인 전체 카드 소비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포함한 전라도 지역 거주 관광객의 제주지역 카드소비액은 2018년 2,2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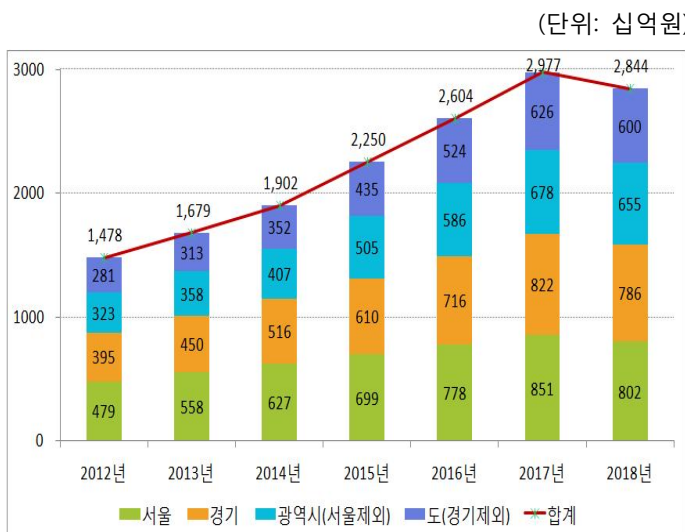
<표2-3> 거주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

구 분	신용카드 소비액(10억원)							신용카드 소비 비중(열비율,%)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서 울	479	558	627	699	778	851	802	32.4	33.2	33.0	31.1	29.9	28.6	28.2
경 기	395	450	516	610	716	822	786	26.7	26.8	27.1	27.1	27.5	27.6	27.6
인 천	88	105	120	144	171	194	187	6.0	6.2	6.3	6.4	6.6	6.5	6.6
부 산	79	85	94	121	134	154	146	5.3	5.1	5.0	5.4	5.1	5.2	5.1
경 남	67	72	78	98	115	135	129	4.6	4.3	4.1	4.3	4.4	4.5	4.5
대 구	49	54	66	82	98	114	110	3.3	3.2	3.5	3.6	3.8	3.8	3.9
충 북	42	49	55	70	87	104	96	2.8	2.9	2.9	3.1	3.3	3.5	3.4
경 북	42	45	54	67	78	91	87	2.8	2.7	2.8	3.0	3.0	3.1	3.1
광 주	43	46	50	62	72	85	86	2.9	2.7	2.7	2.7	2.8	2.9	3.0
전 남	32	35	39	51	60	74	74	2.2	2.1	2.1	2.2	2.3	2.5	2.6
충 남	34	38	43	52	64	77	72	2.3	2.3	2.3	2.3	2.4	2.6	2.5
대 전	36	39	43	52	62	72	66	2.4	2.3	2.3	2.3	2.4	2.4	2.3
강 원	32	37	41	48	59	69	66	2.1	2.2	2.2	2.1	2.3	2.3	2.3
울 산	28	30	33	44	50	58	61	1.9	1.8	1.8	2.0	1.9	1.9	2.1
전 북	32	35	38	44	52	61	60	2.2	2.1	2.0	2.0	2.0	2.0	2.1
세 종	0.4	3	4	6	10	15	17	0.0	0.2	0.2	0.3	0.4	0.5	0.6
합 계	1,478	1,679	1,902	2,250	2,604	2,977	2,84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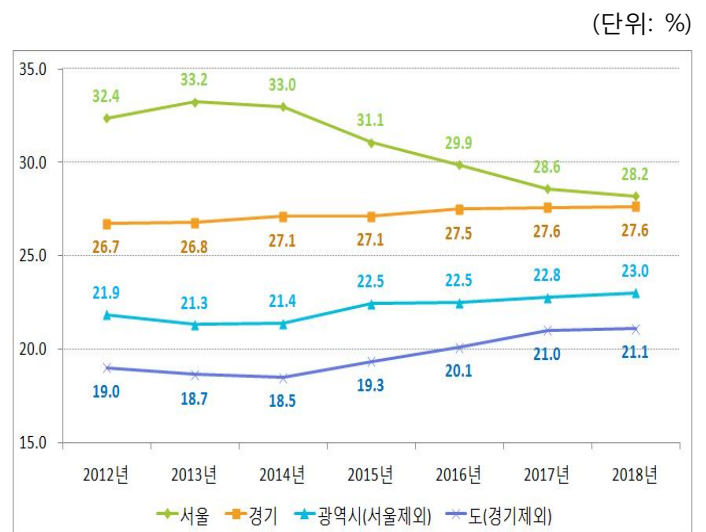


- 제주 제외 전국 16개 시도를 서울, 경기, 광역시(서울제외), 도(경기제외)의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림 2-3>과 같이 연도별 카드소비액을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2012년부터 카드소비액이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에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각 권역의 2012년 대비 2018년 카드소비액 성장규모는 경기제외 도 2.1배(2,810억원→6,000억원), 서울제외 광역시 2.0배(3,230억원→ 6,550억원), 경기 2.0배(3,950억원→7,860억원), 서울 1.7배(4,790억원→8,020억원)의 순으로 나타남
- 신용카드 소비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은 2012년 32.4%에서 2013년 33.2%로 성장한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8년 28.2%로 하락함. 경기지역은 2012년 26.7%에서 매년 소폭 상승하거나 현상 유지하여, 2018년 27.6%를 유지함. 서울제외 광역시는 2012년 21.9%에서 2013년 21.3%로 감소한 후에, 2018년까지 소폭 상승하거나 현상 유지하여 23.0%로 회복함. 경기 제외 도 지역은 2012년 19.0%에서 2014년까지 하락하여 18.5%를 기록한 후에, 지속 증가하여 2018년에 21.1%로 성장함

<그림2-4> 거주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



[신용카드 소비액]



[신용카드 소비 비중]

주) 세종자치시는 충남에서 분리된 점을 고려하여 도(경기제외) 지역에 포함함

- 거주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서울은, 2018년 기준, 내국인 카드소비액 전체의 28.2%를 차지하는 중요 지역이나, 소비비중이 2013년 33.2%에서 지속 하락하고 있음. 둘째,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카드소비 비중이 26~27%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셋째,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카드소비 비중은 2014년 39.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44.1%로 성장함. 이를 종합할 때, 서울의 소비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소비비중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의 소비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 2-4. 이용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 이용지역별 카드소비액 분석을 위해, 전체 카드소비액에서 운수업 소비액을 제외하였음. 운수업 관련 카드소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항공권 구매로, 제주국제공항이 있는 제주 도심의 카드 소비액을 크게 증가시킴. 항공권 구매 외의 운수업 소비액은 택시, 버스 이용금액 등으로 이용지역을 특정할 수 없음. 따라서 이용지역별 카드 소비액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운수업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였음
- 이용지역은, <표2-4>와 같이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였음. 시내 동지역을 중심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도심, 동부, 서부의 3권역으로 각각 구분함

<표2-4> 이용지역 구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도심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도심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
시내 동지역 (구 제주시)	조천읍, 구좌읍, 우도면	애월읍, 한경면, 한림읍, 추자면	시내 동지역 (구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안덕면, 대정읍

- <표2-4> 신용카드 소비액에서, 2018년 이용지역별 카드소비액은, 제주시 도심 1조 240억원(50.5%), 서귀포시 도심 1,580억원(20.5%), 서귀포시 동부 1,790억원(8.8%), 제주시 서부 1,580억원(7.8%), 제주시 동부 1,480억원(7.3%), 서귀포시 서부 1,020억원(5.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표2-4>의 신용카드 소비비중에서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제주시 도심이 2012년 56.8%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8년에 50.5%까지 낮아졌음. 반면, 제주시 동부는 4.5%에 7.3%로 2.8% 상승하였고, 제주시 서부는 5.1%에서 7.8%로 2.7% 상승하였음. 이 두지역의 상승 값의 합은 5.5%, 제주시 도심 지역의 하락 값인 6.3%에 상응하는 것으로 나타남. 서귀포시 지역은 서귀포시 도심과 동부의 비중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귀포시 서부의 비중이 2012년 3.3%에서 2018년 5.1%로 1.8%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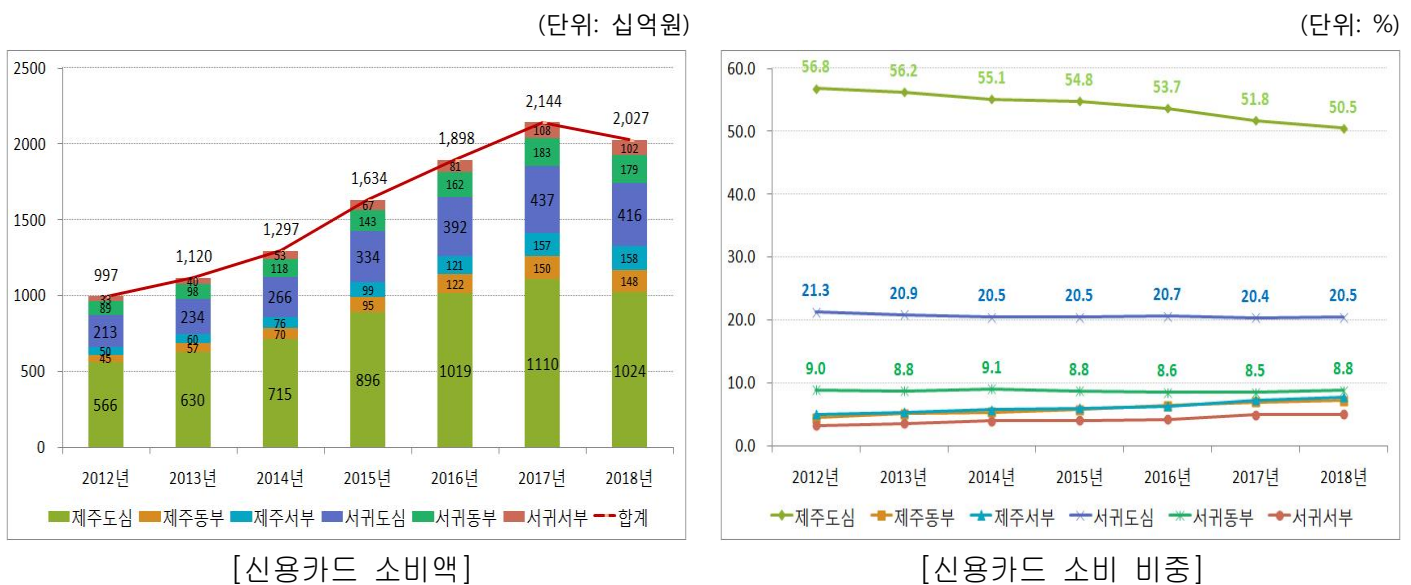
<표2-4> 이용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운수업 제외)

구 분	신용카드 소비액(10억원)							신용카드 소비 비중(열비율,%)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제주시 도심	566	630	715	896	1019	1,110	1,024	56.8	56.2	55.1	54.8	53.7	51.8	50.5
제주시 동부	45	57	70	95	122	150	148	4.5	5.1	5.4	5.8	6.4	7.0	7.3
제주시 서부	50	60	76	99	121	157	158	5.1	5.4	5.8	6.1	6.4	7.3	7.8
서귀포시 도심	213	234	266	334	392	437	416	21.3	20.9	20.5	20.5	20.7	20.4	20.5
서귀포시 동부	89	98	118	143	162	183	179	9.0	8.8	9.1	8.8	8.6	8.5	8.8
서귀포시 서부	33	40	53	67	81	108	102	3.3	3.6	4.1	4.1	4.3	5.0	5.1
합 계	997	1,120	1,297	1,634	1,898	2,144	2,02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운수업 매출은 항공권 구매와 이용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교통수단 이용금액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 <표2-4>와 <그림2-5>의 신용카드 소비 비중을 함께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시 동부 지역이 서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였고, 2016년에 두 지역은 6.4%의 동일한 카드 소비비중을 보임. 그러나 2017년부터 제주시 서부 지역의 카드 소비 비중이 더 많이 성장하여 제주시 동부 지역을 추월하였음. 서귀포시 동부 지역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8% 후반대의 유사한 카드 소비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제주시 동부지역과 제주시 서부 지역이 가까운 미래에 서귀포시 동부 지역의 카드 소비비중을 따라 잡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2-5> 이용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운수업 제외)



\* 운수업 매출은 항공권 구매와 이용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교통수단 이용금액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 이용지역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제주시 도심 지역에서 제주시 동·서부 지역으로 관광객 카드 소비가 분산되고 있음. 둘째, 서귀포시 도심과 서귀포시 동부 지역은 카드 소비액 비중의 큰 변화가 없이 정체되어 있음. 셋째, 서귀포 서부 지역의 카드 소비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이를 종합할 때, 제주시 동·서부와 서귀포시 서부가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도심과 서부는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제주시 동·서부와 서귀포시 서부는 최근 카페와 맛집 등이 많이 생긴 지역으로,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투자가 선행되어 관광객의 소비가 증가한 요인도 있음

## 2-5. 업종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 2018년 내국인 관광객 수는 1,352만명으로, 2017년 1,309만명 대비 3.2% 수준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업종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도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였음. <표2-5>의 각 업종별 합계 행을 보면, 카드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한 업종은 기타업으로 전년대비 19.8% 감소하였음. 다음으로 숙박업이 6.9% 감소, 소매업이 5.7% 감소, 여가·스포츠·레저업이 4.1% 감소하여, 관광객 감소율 3.2% 보다 높은 감소율을 보임
- 전체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연령대별로 세분화할 경우, 50대와 60대 이상의 소비액은 전년대비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2018년 기준, 60대의 소매업 카드 소비액이 804억원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였고, 50대의 숙박업 카드 소비액이 365억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하였음. 음식점업, 운수업, 여가·스포츠·레저업에서는 50대와 60대 이상 모두에서 카드 소비액이 전년대비 최소 1.6%에서 최대 14.6%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2-5> 연령대별·업종별 내국인 카드 소비액 현황

(단위 : 십억원)

구 분	1.소매업			2.숙박업			3.음식점업		
	2018년	2017년	증감(%)	2018년	2017년	증감(%)	2018년	2017년	증감(%)
20대 이하	172.9	185.2	-6.6	24.2	26.5	-8.8	166.5	167.0	-0.3
30 대	252.3	280.7	-10.1	70.1	79.5	-11.8	206.1	221.9	-7.1
40 대	239.6	255.3	-6.2	66.3	71.0	-6.5	180.3	191.1	-5.6
50 대	172.0	174.8	-1.6	36.5	35.9	1.8	122.0	119.7	1.9
60대 이상	80.4	76.8	4.6	14.8	14.8	-0.1	48.6	47.2	2.9
합 계	917.2	972.8	-5.7	212.0	227.7	-6.9	723.5	746.8	-3.1

구 분	4.운수업			5.여가·스포츠·레저업			6.기타업		
	2018년	2017년	증감(%)	2018년	2017년	증감(%)	2018년	2017년	증감(%)
20대 이하	154.2	166.1	-7.1	9.8	10.5	-6.9	13.4	16.1	-17.2
30 대	261.8	280.8	-6.8	20.6	23.2	-11.0	20.4	27.5	-26.0
40 대	239.6	240.6	-0.4	28.9	31.9	-9.4	20.6	26.8	-23.1
50 대	127.0	115.6	9.9	27.2	26.7	1.6	13.7	15.3	-10.7
60대 이상	34.4	30.0	14.6	15.3	13.8	10.5	4.6	4.8	-3.3
합 계	817.0	833.1	-1.9	101.8	106.2	-4.1	72.6	90.5	-19.8

- 업종별·연령대별 내국인 관광객 카드 분석 결과, 내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카드소비가 감소추세 속에서도 50대와 60대 이상의 카드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 같은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째 국내 경제의 침체 속에 여행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소비활동을 하고 있고, 둘째,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장년층에게 제주를 여전히 매력적인 관광지로 선호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III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심층 분석

### 3-1. 권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을 위해, <표3-1>과 같이 7개의 외국 권역을 구분함. 7개 권역은 일본권, 중국권, 비중국중화권, 동남아시아권, 북미권, 유럽권, 기타권임. 이 권역 구분은 제주도를 많이 방문하는 주요국을 기준으로 정의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과 동일한 권역을 사용하되, 기타에서 유럽을 분리한 차이점이 있음

<표3-1> 외국 권역 구분

일본권	중국권	비중국중화권	동남아시아권	북미권	유럽권	기타
일본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 2018년 기준 권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6,320억원으로 전체의 79.2%를 차지함. 다음으로 유럽권이 420억원으로 5.3%, 북미권이 390억원으로 4.9%를 차지하는데, 이 두 지역의 합은 전체의 10.2% 수준으로 의미 있음. 다음으로, 비중국중화권(홍콩, 대만)의 카드 소비가 330억으로 4.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표3-2〉 권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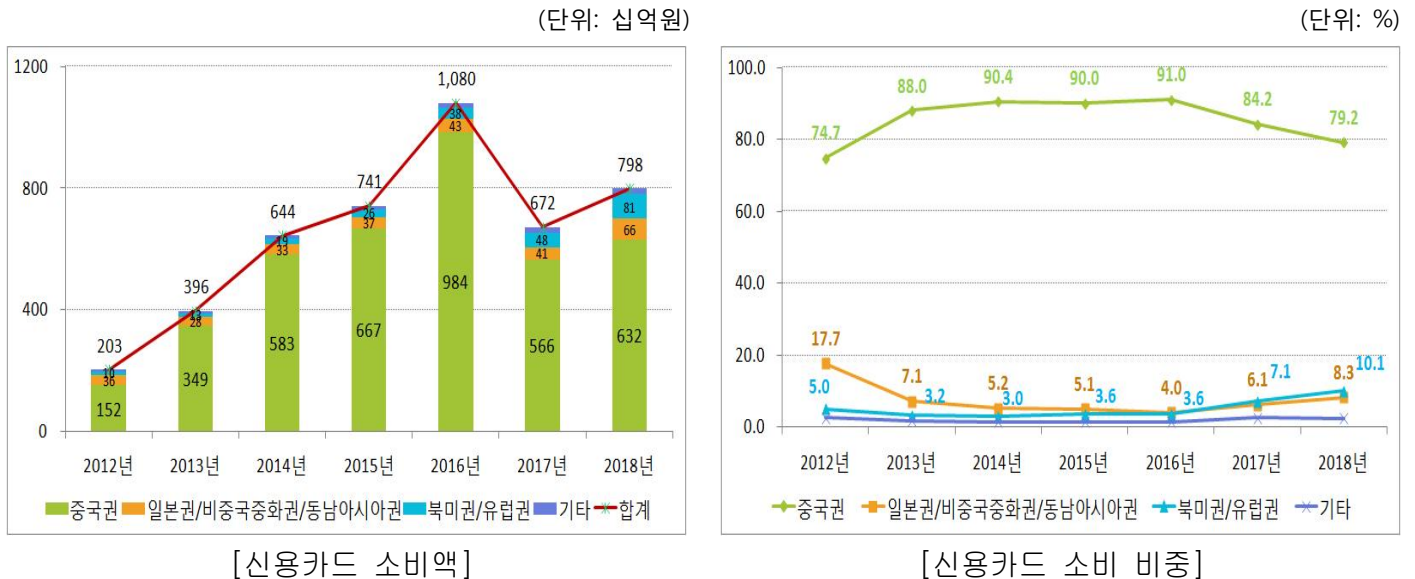
구 분	신용카드 소비액(10억원)							신용카드 소비 비중(열비율,%)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일본권	25	16	14	9	10	11	16	12.5	4.0	2.2	1.2	1.0	1.6	2.0
중국권	152	349	583	667	984	566	632	74.7	88.0	90.4	90.0	91.0	84.2	79.2
비중국중화권	8	9	12	17	23	22	33	4.0	2.2	1.9	2.3	2.1	3.3	4.2
동남아시아권	3	3	8	12	10	8	17	1.2	0.8	1.2	1.6	1.0	1.2	2.2
북미권	6	6	10	16	23	27	39	2.7	1.6	1.6	2.2	2.2	4.1	4.9
유럽권	5	6	9	10	15	20	42	2.3	1.5	1.4	1.3	1.4	3.0	5.3
기 타	5	7	9	10	15	17	19	2.6	1.8	1.4	1.4	1.4	2.6	2.4
합 계	203	396	644	741	1,080	672	79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의 권역구분을 사용하되, 기타에서 유럽을 분리함

- <그림3-1>의 권역별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비중에서, 중국권이 2012년 74.7%에서 2016년 91.0%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 84.2%, 2018년 79.2%로 감소하였음. 이는 사드 이후, 중국인 관광객 감소효과를 반영함
- 일본권의 경우, 2012년 17.7%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8년 8.3%로 2012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북미·유럽권은 2012년 5.0%에서 2018년 10.1%로 약 2배 이상 신장하였음



<그림3-1> 권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



- 권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 분석결과, 다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 비중은 90%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사드 이후 79.2%까지 하락함. 둘째, 북미·유럽권의 카드 소비는 2016년 3.6%에서 지속 성장하여 2018년 10.1% 수준에 이름. 셋째, 일본권의 카드 소비는 2012년 17.7% 이후, 대체로 5% 전후를 기록하다가, 2018년에 8.3%로 회복세로 돌아섬. 따라서, 북미와 유럽이 매력 있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일본시장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 기존의 동남아 중심의 마케팅을 포함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마케팅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2. 이용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 내국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용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에서, 제주공항에서의 항공권 구매액과 이용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교통수단 이용액을 포함하는 운수업 카드매출을 제외함

<표3-2> 이용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현황(운수업 제외)

구 분	신용카드 소비액(10억원)							신용카드 소비 비중(열비율,%)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제주시 도심	124.9	235.0	356.4	453.0	849.6	559.7	628.0	64.0	61.6	58.6	69.5	85.3	89.5	87.4
제주시 동부	0.6	1.1	3.7	3.4	9.7	2.8	4.3	0.3	0.3	0.6	0.5	1.0	0.4	0.6
제주시 서부	4.0	4.4	11.7	7.2	7.3	5.0	6.6	2.0	1.2	1.9	1.1	0.7	0.8	0.9
서귀포시 도심	53.7	126.7	207.9	165.2	101.6	43.5	56.2	27.5	33.2	34.2	25.4	10.2	7.0	7.8
서귀포시 동부	10.9	12.1	19.3	15.7	21.1	11.4	18.2	5.6	3.2	3.2	2.4	2.1	1.8	2.5
서귀포시 서부	1.1	2.4	9.7	7.0	6.3	2.9	5.0	0.6	0.6	1.6	1.1	0.6	0.5	0.7
합 계	195	382	609	652	996	625	71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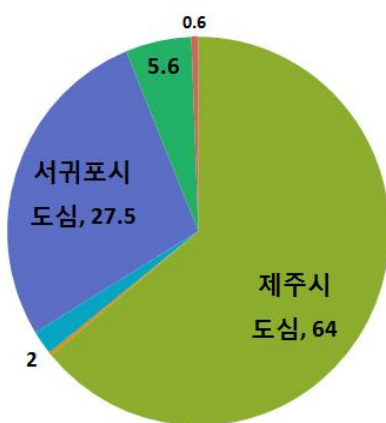
\* 운수업 매출은 항공권 구매와 이용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교통수단 이용금액으로 분석에서 제외함

- <표3-2>에서 2018년 기준, 이용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 소비 현황은 제주시 도심이 87.4%, 서귀포시 도심이 7.8%, 서귀포시 동부가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제주시 도심, 서귀포시 도심은 쇼핑, 숙박, 음식점업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카드 소비 다발지역임. 그리고 제주시 도심, 서귀포시 도심, 서귀포시 동부는 80~90년대 관광개발로 조성된 관광단지가 위치한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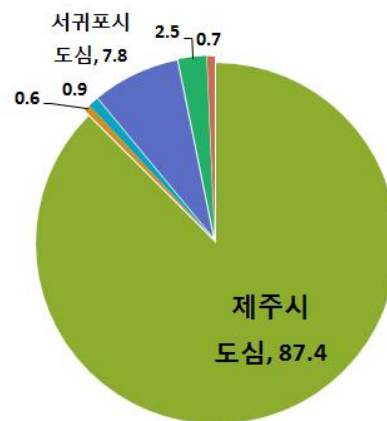
<그림3-2> 이용지역별 외국인 카드소비 구성비율 변화

(단위: %)

(단위: %)



[2012년]



[2018년]

- <그림3-2>의 이용지역별 외국인 카드소비 구성비율 변화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제주시 도심이 64%, 서귀포시 도심이 27.5%, 서귀포시 동부가 5.6%였던 분포가, 2018년에는 제주시 도심 87.4%, 서귀포시 도심 7.8%, 서귀포시 동부 2.5%로 제주시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외국인 카드소비가 제주시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2012년 이후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효과가 반영됨. <표3-3>에서, 제주시 도심의 외국인 카드 소비액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82.9%에서 2016년 96.4%까지 상승하였다가, 2018년 92.7%로 소폭 감소함

<표3-3> 이용지역별 외국인 카드 소비 중국 의존도\*(운수업 제외)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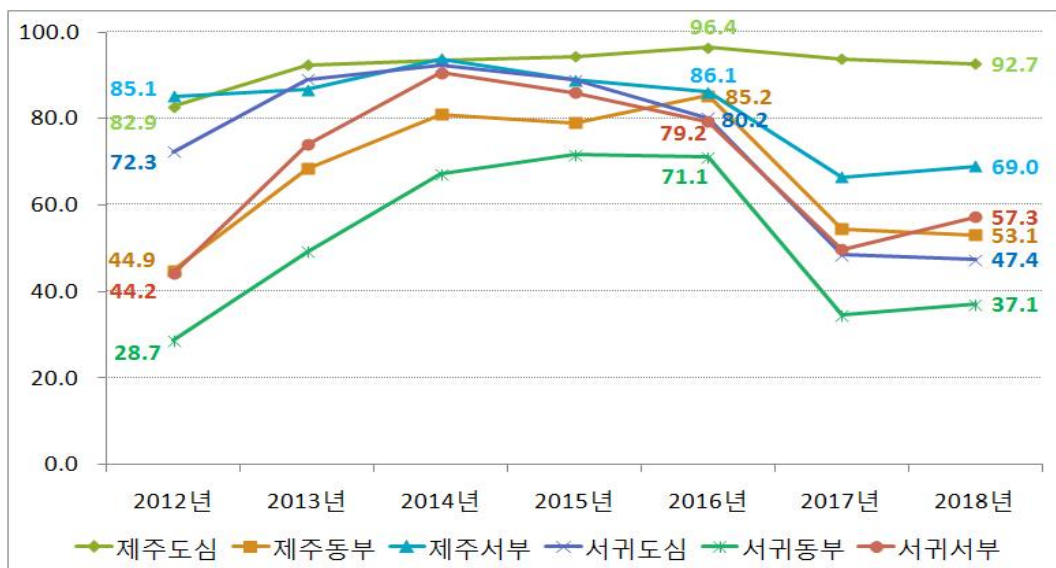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제주시 도심	82.9	92.4	93.5	94.4	96.4	93.9	92.7
제주시 동부	44.9	68.4	80.9	79.0	85.2	54.4	53.1
제주시 서부	85.1	86.8	93.8	88.9	86.1	66.4	69.0
서귀포시 도심	72.3	89.1	92.3	88.9	80.2	48.6	47.4
서귀포시 동부	28.7	49.2	67.1	71.6	71.1	34.6	37.1
서귀포시 서부	44.2	74.0	90.6	86.0	79.2	49.7	57.3
합 계	76.6	89.7	92.1	92.2	94.0	89.0	87.1

\* 중국의존도(%) = (중국권 카드 소비액) ÷ (외국인 전체 카드 소비액) × 100

- 운수업을 제외한 이용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중국 의존도를 시계열로 살펴보면,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시 도심으로, 2012년 82.9%, 2016년 96.4%, 2018년 92.7%로 평균 90% 이상의 의존율을 보임. 대중국 의존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서귀포시 동부 지역으로, 2012년 28.7%, 2016년 71.1%, 2018년 37.1%의 의존율을 보임
- 2012년 기준, 제주시 도심, 제주시 서부, 서귀포시 도심이 70% 이상의 대중국 의존도를 보인 반면, 제주시 동부,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는 50% 이하의 대중국 의존도를 보임. 중국인 관광객이 306만명으로 가장 많이 방문한 2016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70% 이상을 기록함. 사드 이후, 2018년에는 2012년에 대중국 의존도가 50% 이하 지역이었던 제주시 동부, 서귀포시 동부, 서귀포시 서부의 의존도가 50%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돌아왔고, 2012년에 대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제주시 서부지역과 서귀도심 지역의 대중국 의존도가 2018년에는 각각 85.1%에서 69.0%로, 72.3%에서 47.4%로 하락함. 따라서 제주시 도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중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음. 단, 서귀포시 서부의 경우, 2018년에 신화월드 내 외국인 면세점 개업의 영향으로 대중국인 의존도가 전년보다 다소 상승하였음

<그림3-2> 이용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중국 의존도(운수업 제외)

(단위: %)



- 이상의 결과에서, 다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외국인 카드 소비 비중은 제주시 도심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음. 둘째, 2018년 기준, 제주시 도심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대중국 의존도는 최저 37.1%에서 최고 69.0%로, 50% 전후의 분포를 보임. 2018년 기준 중국인 관광객 수는 67만명 수준으로 전체 122만명의 55%를 차지함. 이는 제주시 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대중국 의존도와 비슷한 수준임

### 3-3. 권역별·업종별 외국인 관광객 카드소비 분석

- 2018년 기준 권역별·업종별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모든 업종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3-4>의 합계 행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소매업은 5,902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증가, 숙박업은 757억원으로 전년대비 27.0%증가, 음식점업은 370억원으로 전년대비 27.2% 증가, 운수업은 803억원으로 전년대비 73.0% 증가, 여가·스포츠·레저업은 111억원으로 전년대비 113.6% 증가, 기타업은 42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업종별 외국인 카드 소비에서는, 소매업에서 기타권역과 운수업에서 중국권이 전년대비 카드 소비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카드 소비가 증가함. 2018년 기준, 전년대비 카드 소비액이 100% 이상 증가한 경우는, 동남아시아권의 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업, 유럽권의 운수업, 북미와 유럽권의 여가·스포츠·레저업임. 특히, 북미와 유럽의 여가·스포츠·레저업은 전년대비 각각 383%, 635% 상승하여 그 상승폭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4> 권역별·업종별 외국인 카드 소비액 현황

(단위 : 십억원)

구 분	1.소매업			2.숙박업			3.음식점업		
	2018년	2017년	증감(%)	2018년	2017년	증감(%)	2018년	2017년	증감(%)
일본권	5.7	4.3	33.1	2.3	1.8	25.6	1.7	1.0	64.2
중국권	559.3	505.0	10.8	31.7	24.0	31.7	27.7	22.8	21.4
비중국중화권	9.6	5.4	77.7	1.5	1.4	5.8	1.0	0.7	50.4
동남아시아권	5.7	2.8	100.2	1.1	0.6	70.9	0.7	0.3	136.1
북미권	4.9	3.7	32.5	20.2	16.2	24.4	3.3	2.1	53.4
유럽권	1.9	1.4	31.9	15.2	11.7	29.7	1.1	0.9	23.1
기 타	3.0	5.0	-39.8	3.8	3.8	0.8	1.5	1.2	21.4
합 계	590.2	527.7	11.8	75.7	59.6	27.0	37.0	29.1	27.2

구 분	4.운수업			5.여가·스포츠·레저업			6.기타업		
	2018년	2017년	증감(%)	2018년	2017년	증감(%)	2018년	2017년	증감(%)
일본권	5.2	3.3	54.9	0.6	0.4	56.4	0.2	0.1	51.0
중국권	7.0	9.0	-22.8	5.4	3.5	53.6	1.4	1.3	4.7
비중국중화권	20.7	13.9	48.8	0.3	0.2	38.7	0.3	0.3	7.8
동남아시아권	9.3	4.0	134.2	0.2	0.1	75.8	0.4	0.2	85.4
북미권	6.9	4.0	70.6	2.9	0.6	383.4	0.7	0.6	22.7
유럽권	22.0	5.7	287.1	1.3	0.2	634.5	0.4	0.3	21.1
기 타	9.2	6.4	43.2	0.5	0.2	90.0	0.9	0.8	2.9
합 계	80.3	46.4	73.0	11.1	5.2	113.6	4.2	3.6	15.3

- 권역별·업종별 외국인 카드소비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동남아시아권의 카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할랄 푸드 등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 확대가 필요함. 둘째, 북미·유럽권의 여가·스포츠·레저업의 카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2017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한 PGA 대회인 ‘더 CJ컵’의 반사효과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IV 면세점 제외 소매업 카드소비 비교 분석

- 2018년 기준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외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1조 6,815억원이고, 내국인 면세점의 매출액은 5,551억원으로, 총액이 2.2조원에 달함. 「2018년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내·외국인 관광객 조수입은 6.5조원으로, 면세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관광조수입의 34%를 차지함. 따라서, 카드 소비액 분석에서도 면세점을 제외한 접근이 필요함. 면세점은 업종 구분에서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면세점을 제외 전·후의 소매업 매출을 비교분석 함
- 내국인의 카드 소비액은, 면세점 포함 소매업이 2012년 5,090억원에서 2018년 9,170억원으로 1.8배 증가한 반면, 면세점 제외 소매업이 2,370억원에서 5,690억원으로 2.2배 증가하여, 더 큰 상승폭을 보임.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면세점 포함 소매업이 2012년 1,480원에서 2018년 5,900억원으로 4배 증가한 반면, 면세점 제외 소매업이 2012년 190억원에서 2018년 470억원으로 2.5배 증가하여, 더 낮은 상승폭을 보임
- 소매업 중 면세점 비율은, 총액기준 최저 61%에서 최고 68%로, 65% 전후의 비율을 차지함. 내국인의 경우, 소매업 중 면세점 카드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3%에서 대체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43% 수준까지 떨어짐.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2012년 87%에서 대체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92% 수준까지 상승함. 사드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360만에서 123만명으로(중국인 306만명→75만명) 전년대비 1/3(중국인 1/4) 수준으로 급감한 2017년에 소매업 중 면세점 비율은 오히려 91%에서 94%로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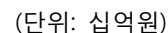
<표4-1> 면세점 포함 및 제외 시 소매업 카드소비 비교

구분	면세점 포함 소매업(십억원)			면세점 제외 소매업(십억원)			소매업 중 면세점 비율(%)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소계	내국인	외국인
2012년	657	509	148	256	237	19	61	53	87
2013년	839	547	292	297	273	24	65	50	92
2014년	1,033	604	428	364	312	52	65	48	88
2015년	1,238	769	469	438	384	54	65	50	88
2016년	1,650	878	772	521	451	70	68	49	91
2017년	1,500	973	528	571	540	30	62	44	94
2018년	1,507	917	590	569	522	47	62	43	92

- <그림4-1>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면세점 포함 소매업 카드 소비액은 1조 5천억원으로, 면세점 제외 소매업 카드 소비액 5,690억원의 약 3배 수준임. 내국인의 경우, 면세점 포함 소매업 소비액은 9,170억원으로 면세점 제외 소매업은 5,220억원의 약 1.8배 수준이나, 외국인의 경우, 면세점 포함 소매업 소비액은 5,900억원으로 면세점 제외 소매업 소비액은 470억원의 12.6배에 달함
- 2017년 면세점 포함 소매업 카드 소비액은 5,280억원으로 2014년 4,280억원과 2015년 4,690억원보다 많지만, 2017년 면세점 제외 소매업 소비액은 300억원인 반면, 2014년 520억원과 2016년 540억원보다 적음



(단위: 십억원)



[면세점 제외 시 소매업 카드 소비액]

<표4-2> 내국인 연령대별 면세점 포함 및 제외 시 소매업 카드소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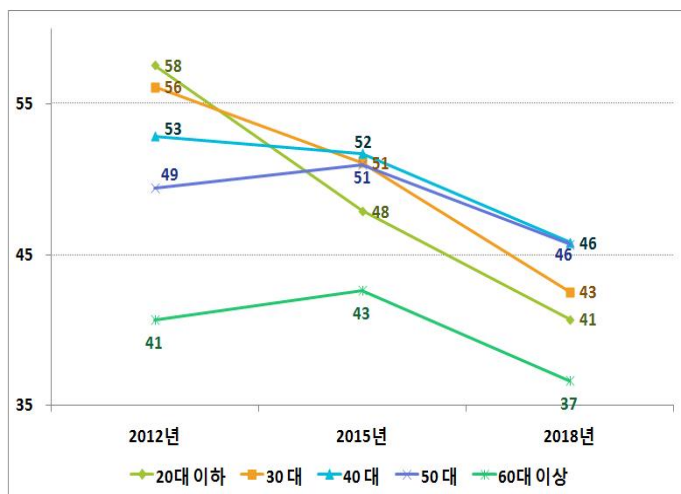
구분	면세점 포함 소매업(십억원)			면세점 제외 소매업(십억원)			소매업 중 면세점 비율(%)		
	2012년	2015년	201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대 이하	90	149	173	38	77	103	58	48	41
30 대	166	241	252	73	118	145	56	51	43
40 대	132	199	240	62	96	130	53	52	46
50 대	86	129	172	44	63	93	49	51	46
60대 이상	34	51	80	20	29	51	41	43	37
합계	509	769	917	237	384	522	53	50	43

구분	면세점 포함 소매업(십억원)			면세점 제외 소매업(십억원)			소매업 중 면세점 비율(%)		
	2012년	2015년	2018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12년	2015년	2018년
일본권	18.9	3.6	5.7	5.4	1.8	3.5	71	50	38
중국권	118.4	449.7	559.3	7.1	41.9	24.0	94	91	96
비중국중화권	4.9	3.4	9.6	3.1	2.1	8.2	37	38	15
동남아시아권	1.4	7.0	5.7	0.9	5.5	4.5	31	22	21
북미권	1.8	2.4	4.9	0.9	1.3	3.3	51	46	32
유럽권	1.0	1.0	1.9	0.4	0.6	1.5	65	40	22
기타	1.8	2.2	3.0	0.8	1.0	1.9	57	53	38
합계	148	469	590	19	54	47	87	88	92

- <표4-3>에서 2018년 기준, 외국인 권역별 소매업 카드소비 중 면세점 비율을 살펴보면, 비중국중화권이 15%로 가장 낮고, 중국권이 96%로 가장 높음. 중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에서는 일본권과 기타권이 38%로 높고, 북미권이 32%, 유럽권 22%, 동남아시아권이 21%의 분포를 보임. 중국이 소매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어서, 함께 기준 소매업 중 면세점 비율은 92% 수준임
- <그림4-2>의 좌측 그래프에서는 내국인 연령대별 소매업 카드소비 중 면세점 비중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20대 이하의 경우, 2012년 58%에서 2018년 41%로 17%가 하락하여 가장 높은 감소폭을 보임. 다음으로 30대가 2012년 56%에서 2018년 43%로 13%의 감소폭을 보임.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2015년에 2012년 대비 각각 2%씩 상승하였다가, 2018년에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그림4-2>의 우측 그래프에서는 외국인 권역별 소매업 카드소비 중 면세점 비중변화를 확인할 수 있음. 비중국중화권과 동남아시아권은 2012년 30%대의 비율에서 2018년 20% 이하의 비율로 감소하였고, 북미권과 기타권은 2012년 50%대의 비율에서 2018년 30%대의 비율로 하락함. 일본권과 유럽권은 65% 이상의 비율에서 30%대 비율로 떨어져 하락폭이 가장 큼. 중국권은 2012년 94%, 2015년 91%, 2018년 96%로 90%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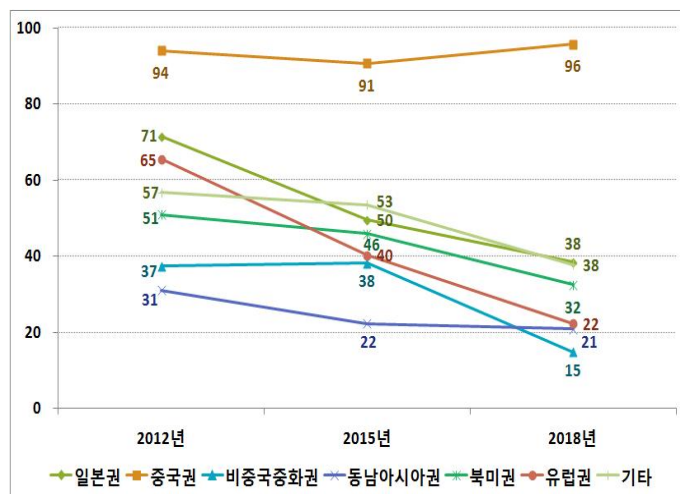
<그림4-2> 내·외국인 소매업 카드소비 중 면세점 비중 비교

(단위: %)



[내국인 연령대표]

(단위: %)



[외국인 권역별]

- 면세점 제외 소매업 카드소비 비교 분석결과 다음을 확인할 수 있음. 첫째, 내국인 소매업 카드 소비액 중 면세점 비중은 2012년 53%에서 2018년 43%로 낮아짐. 둘째, 내국인 소매업 카드 소비액은 2012년 대비, 2018년 1.8배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면세점을 제외할 경우, 2.2배로 성장폭이 커짐. 셋째, 2017년 외국인 관광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매업 카드 소비액 중 면세점 비중은 증가함. 넷째, 2017년 외국인 소매업 카드 소비액은 2014년, 2015년보다 많지만, 면세점 카드 소비액을 제외할 경우, 반대로 적어짐. 다섯째, 2012년 기준, 외국인 소매업 카드 소비액 중 면세점 비중이 50~70%로 높았던 일본권, 유럽권, 북미권의 비율이 2018년에는 40% 이하로 떨어짐. 이 결과들로부터, 내국인은 면세점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소매업 전반의 성장이 있었던 반면, 외국인은 면세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됨

## V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GIS 분석

-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분석을 위해, 법정동에 기준하여 지역을 세분화 함.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시의 7개 읍면지역과 39개 동지역과 서귀포시의 5개 읍면지역과 23개 동지역을 합쳐 총 74개의 법정동이 있음

<표5-1> 법정동 구분

구분	제주시(46)	서귀포시(28)
읍면지역 (12)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62)	일도이동, 이도일동, 이도이동, 삼도일동, 삼도이동, 건입동, 용담일동, 용담이동, 용담일동, 화북일동, 화북이동, 삼양일동, 삼양이동, 삼양삼동, 봉개동, 아라일동, 아라이동, 오라일동, 오라이동, 오라삼동, 노형동, 외도일동, 외도이동, 이호일동, 이호이동, 도두일동, 도두이동, 도남동, 도련일동, 도련이동, 용강동, 회천동, 오등동, 월평동(제주시), 영평동, 연동, 도평동, 해안동, 내도동	서귀동, 법환동, 서호동, 호근동, 동흥동, 서흥동, 상호동, 하효동, 신호동, 보목동, 토평동, 중문동, 회수동, 대포동, 월평동, 강정동, 도순동, 하원동, 색달동, 상예동, 하예동, 영남동, 월평동(서귀포시)

- **이용지역 분석에서 운수업 카드 소비는 분석에서 제외함.** 운수업 매출은 제주공항에서 항공권 구매와 이용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택시, 버스 등 교통수단에 대한 카드소비를 포함하고 있음. 운수업 카드소비의 대부분은 항공권 구매액으로, 이를 제외해도 카드소비 이용지역 분석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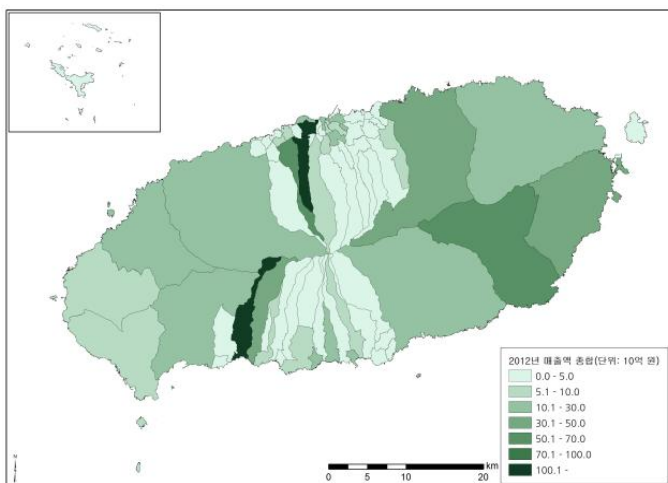
<표5-2> 연도별 ·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현황

(단위 : 십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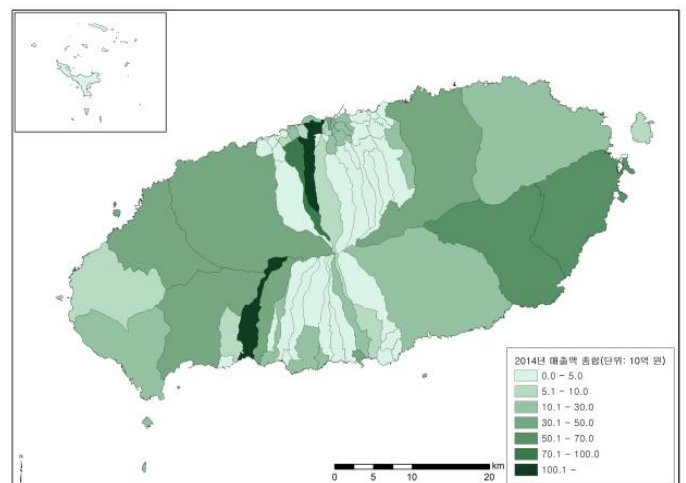
순위	이용동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연동	168.7	268.3	377.4	480.9	865.9	633.0	689.0
2	용담이동	301.3	330.1	356.6	454.4	513.5	524.1	471.3
3	색달동	117.3	195.1	268.6	233.4	169.8	144.1	147.5
4	노형동	57.7	70.5	89.8	108.4	135.1	118.3	108.7
5	성산읍	33.3	43.0	60.3	76.9	88.8	92.6	91.2
6	조천읍	32.2	41.4	49.7	58.1	78.4	88.1	89.0
7	애월읍	24.2	30.1	39.9	53.3	67.2	84.5	87.7
8	서귀동	28.8	38.1	49.7	69.6	88.5	93.1	87.6
9	표선면	53.9	51.3	57.8	58.6	67.2	72.9	79.3
10	안덕면	24.2	29.8	44.8	50.3	58.9	73.2	72.3
11	중문동	46.1	41.2	48.4	63.8	71.1	70.5	65.1
12	한림읍	21.5	25.1	37.3	41.9	47.9	61.6	60.6
13	구좌읍	10.4	12.4	17.0	29.0	37.9	48.7	51.1
14	삼도이동	30.0	34.5	40.1	41.4	45.2	44.5	42.4
15	법환동	16.1	19.5	26.3	32.2	40.7	41.6	37.3
16	이도이동	10.7	15.3	20.6	24.8	30.6	35.8	35.3
17	대정읍	10.0	12.6	17.6	23.5	28.8	37.5	35.2
18	강정동	8.8	10.4	13.6	17.6	26.6	29.5	33.3
19	남원읍	13.1	16.1	19.4	23.1	27.6	28.4	26.8
20	일도일동	5.3	7.5	12.4	16.6	18.3	26.3	26.8

- <표5-2>는 2018년 기준, 카드소비액 상위 20개 지역을 정리한 표로, 2018년에 500억원 이상 카드소비가 발생한 지역은 연동, 용담이동, 색달동, 노형동, 성산읍, 조천읍, 애월읍, 서귀동, 표선면, 안덕면, 중문동, 한림읍, 구좌읍의 13개 지역임
- 카드 소비액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지역의 수는 2012년 5개, 2014년 6개, 2015년과 2016년 각 11개, 2017년 12개, 2018년 13개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림5-1>의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관광편의시설이 집중된 연동, 제주공항이 있는 용담이동, 중문관광단지가 있는 색달동 3개 지역의 카드 소비금액이 1,000억원을 넘음. 2016년부터는 1,000억원 이상 소비지역에 노형동이 포함되어 4개 지역으로 늘어남. 700억원 이상 카드소비 지역은 2012년 연동, 용담이동, 색달동의 3개 지역뿐이었으나, 2018년에는 성산읍, 조천읍, 애월읍, 표선면, 안덕면의 읍면 지역이 다수 포함되면서 총 10개 지역으로 확대 됨. 500억원 이상으로 기준을 낮출 경우, 읍면지역은 한림읍, 구좌읍이 추가로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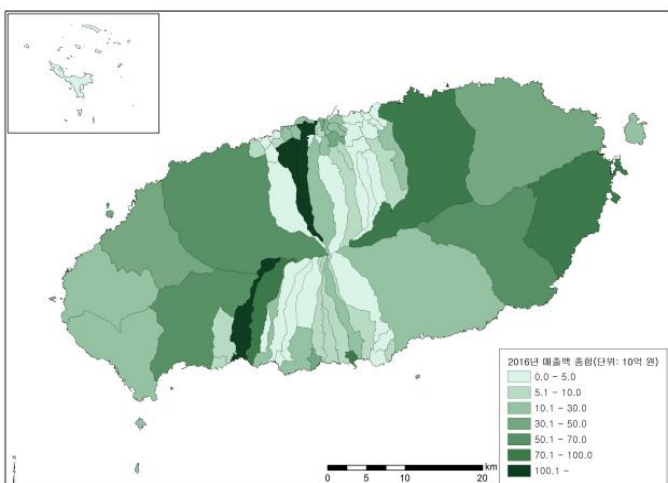
<그림5-1> 연도별 ·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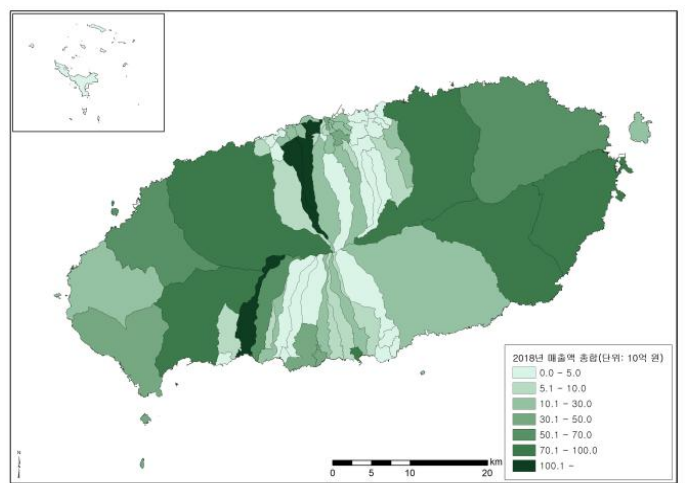
2012년 - 카드소비



2014년 - 카드소비



2016년 - 카드소비



2018년 - 카드소비



- 다음으로, 카드소비 현황을 내·외국인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표5-3>에서 2018년 기준, 내국인의 카드소비 500억원 이상 지역은 용담이동, 연동, 색달동, 노형동, 성산읍, 조천읍, 애월읍, 서귀동, 안덕면, 표선면, 중문동, 한림읍, 구좌읍의 13개 지역임.
- 이는 앞서 살펴본, 2018년 총액기준 카드 소비 500억원을 넘는 지역과 동일함. 그러나 순위에 있어서, 총액 기준 카드소비 2위였던 용담이동이 내국인 카드 소비에서는 1위로 바뀌고, 총액 기준 카드소비 9위였던 표선면이 내국인 카드 소비에서는 10위로 순위가 조정됨
- 내국인 카드 소비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2012년 용담이동, 연동, 색달동, 노형동의 4개 지역에서 2014년 성산읍이 추가되어 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2015년에는 조천읍, 애월읍, 서귀동, 중문동이 포함되어 9개 지역으로 늘어남. 2016년에는 안덕면, 표선면이 추가되어 11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2017년에는 한림읍, 2018년에는 구좌읍이 추가되어 총 13개 지역으로 늘어남
- 2014년 성산읍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읍면지역을 내국인 카드소비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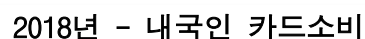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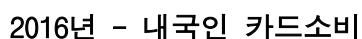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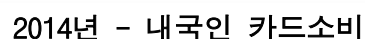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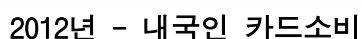
<표5-3> 연도별 · 이용지역별 내국인 카드소비 현황

(단위 : 십억원)

순위	이용동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용담이동	293.3	314.4	341.5	440.8	493.3	512.3	463.6
2	연동	69.6	79.6	92.1	101.6	115.7	122.4	114.4
3	색달동	68.8	79.0	87.8	101.4	104.6	118.3	114.3
4	노형동	50.4	59.9	69.6	85.7	99.0	102.9	96.6
5	성산읍	32.3	40.2	54.2	71.5	79.1	89.4	87.3
6	조천읍	31.8	40.5	47.1	55.9	71.2	86.1	86.1
7	애월읍	23.7	28.5	36.8	50.6	63.7	82.0	84.4
8	서귀동	27.7	35.0	43.1	60.4	76.8	87.9	80.6
9	안덕면	23.1	27.7	35.6	43.7	53.2	70.9	68.2
10	표선면	44.2	42.2	45.0	48.8	56.2	65.5	65.2
11	중문동	45.3	39.5	43.7	54.9	64.7	67.3	61.6
12	한림읍	18.6	22.9	29.4	37.7	44.7	59.4	57.7
13	구좌읍	10.2	12.1	16.2	28.2	37.0	48.3	50.3
14	법환동	15.1	18.4	21.9	28.0	35.5	38.3	35.5
15	대정읍	10.0	12.4	17.0	23.1	28.2	36.9	34.3
16	이도이동	10.5	14.5	18.9	23.4	29.0	34.6	33.8
17	삼도이동	25.0	24.9	23.6	26.1	29.4	35.6	31.1
18	강정동	8.5	9.8	11.6	16.1	25.3	28.9	31.0
19	남원읍	13.0	15.9	18.9	22.8	27.1	27.7	26.7
20	일도일동	5.2	7.1	11.5	15.6	17.0	25.6	25.1



- <그림5-2> 연도별·이용지역별 내국인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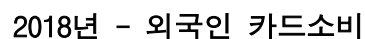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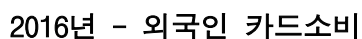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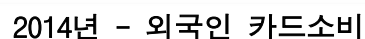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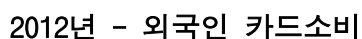
- <표5-4>에서 외국인 카드소비금액 500억원 이상 지역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동과 색달동의 2개 지역이었으나, 2017년부터 연동 1개 지역으로 축소됨. 연동과 색달동은 외국인 면세점이 위치한 지역으로, 색달동의 경우, 2016년 면세점 이전 이후 2017년부터 카드소비금액이 감소함
- 2018년 기준, 외국인 카드 소비금액 100억원 이상 지역은 연동, 색달동, 표선면, 노형동, 삼도이동의 5개 지역임. 이들 지역은 외국인이 주로 숙박하는 호텔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소비지역임
- 용담이동의 경우, 2013년 외국인 카드소비액이 157억원에서 2016년 202억원까지 증가하였으나, 2017년 118억원으로 반감한 후, 2018년에 77억원으로 더욱 하락함
-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14년 333만명과 2016년 360만명으로, 외국인 관광시장이 호황이었던 시기에는 안덕면, 성산읍, 조천읍과 같은 읍면지역으로 외국인 카드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보였으나, 2017년 사드 이후, 해당지역의 외국인 카드 소비가 다시 침체됨. 내국인에게 각광받는 제주시 서부지역인 애월읍과 한림읍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카드 소비가 증가하지 않고 낮은 수준을 유지함

<표5-4> 연도별 · 이용지역별 외국인 카드소비 현황

(단위 : 십억원)

순위	이용동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	연동	99.1	188.6	285.2	379.3	750.3	510.5	574.6
2	색달동	48.6	116.1	180.8	132.0	65.2	25.8	33.2
3	표선면	9.7	9.1	12.7	9.8	10.9	7.4	14.1
4	노형동	7.3	10.6	20.2	22.7	36.1	15.5	12.1
5	삼도이동	5.0	9.6	16.5	15.3	15.9	8.9	11.3
6	이호이동	1.9	1.7	0.1	0.1	0.1	0.1	8.9
7	용담이동	8.0	15.7	15.0	13.6	20.2	11.8	7.7
8	서귀동	1.2	3.1	6.6	9.2	11.7	5.2	7.0
9	안덕면	1.1	2.2	9.2	6.6	5.7	2.3	4.1
10	성산읍	1.1	2.7	6.1	5.5	9.7	3.2	3.9
11	중문동	0.9	1.6	4.7	8.9	6.3	3.2	3.5
12	애월읍	0.6	1.6	3.1	2.7	3.5	2.5	3.4
13	한림읍	2.9	2.2	7.9	4.2	3.1	2.2	2.9
14	조천읍	0.4	0.8	2.6	2.2	7.2	1.9	2.8
15	도남동	0.1	0.8	3.5	6.3	4.8	1.7	2.6
16	강정동	0.3	0.6	2.0	1.4	1.3	0.6	2.3
17	상예동	0.1	0.3	0.8	0.6	0.8	0.3	2.1
18	법환동	0.9	1.2	4.4	4.2	5.3	3.3	1.7
19	일도일동	0.1	0.5	0.9	1.0	1.3	0.7	1.6
20	이도이동	0.2	0.8	1.7	1.4	1.6	1.1	1.5

<그림5-3> 연도별 · 이용지역별 외국인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 다음으로, 좀 더 자세한 분석을 위해 업종별·이용지역별 카드소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카드 소비액 비중이 적은 기타업을 제외한, 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숙박업, 음식점업의 4개 업종에 대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단위의 카드 소비액 변화 추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표5-5>의 소매업 카드소비액에서, 2018년 기준 소매업 카드소비액 상위 10개 지역은 연동, 용담이동, 노형동, 중문동, 애월읍, 표선면, 법환동, 서귀동, 성산읍, 조천읍임. 연동은 외국인 면세점이, 용담이동은 내국인 면세점이 있는 지역으로, 이 두 지역의 2018년 소매업 매출액의 합은 1조원에 가까움. 동 지역 상위지역 중, 노형동은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입점한 지역이고, 법환동은 이마트가 입점한 지역임. 서귀동은 올레시장이 위치한 지역이고, 중문동은 내국인 지정면세점이 입점한 지역임
- <표5-5>의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소비액에서, 2018년 기준 소매업 카드소비액 상위 5개 지역은 안덕면, 조천읍, 표선면, 색달동, 성산읍임. 안덕면은 유명 골프장이 위치한 지역으로, 화순항 주변으로 해양 예술·스포츠·여가업도 발달하였음. 조천읍, 표선면, 색달동, 성산읍 역시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수욕장과 자연경관(함덕·표선·중문 해수욕장, 섬지코지 등) 주변의 예술·스포츠·여가업도 발달함. 한림읍은 2014년까지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 소비액이 125억원으로 4위였으나, 이후 카드 소비액이 감소함

〈표5-5〉 업종별·이용지역별 소매업 및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소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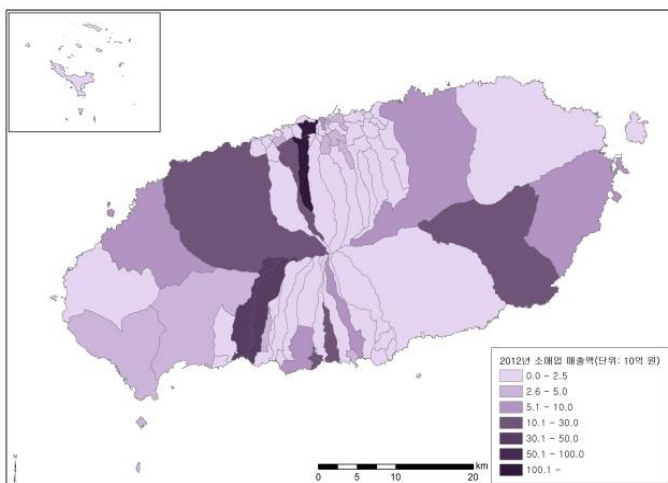
(단위 : 십억원)

순위	소매업					예술·스포츠·여가업				
	이용동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이용동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1	연동	104.8	271.8	720.9	572.8	안덕면	13.0	24.2	24.5	21.1
2	용담이동	271.8	312.9	457.5	416.7	조천읍	10.1	12.0	13.7	13.6
3	노형동	29.3	46.6	68.0	47.7	표선면	7.1	5.6	5.4	11.9
4	중문동	37.5	33.0	43.0	38.5	색달동	13.8	16.4	17.5	10.4
5	애월읍	11.3	16.2	24.7	31.0	성산읍	5.5	9.8	11.9	9.6
6	표선면	22.6	24.3	25.2	29.9	한림읍	7.4	12.5	9.1	8.0
7	법환동	14.1	20.4	29.8	26.4	남원읍	3.9	5.7	7.1	7.8
8	서귀동	4.5	9.8	20.1	24.4	구좌읍	5.1	4.3	4.9	5.5
9	성산읍	6.3	11.7	17.1	23.5	애월읍	5.6	6.8	6.0	5.4
10	조천읍	7.4	10.3	16.0	19.3	한경면	5.4	5.1	5.2	4.6
11	일도일동	3.3	8.5	11.9	18.1	오라이동	3.0	3.5	3.4	3.2
12	한림읍	5.3	8.6	12.4	16.1	봉개동	0.4	0.1	2.1	1.6
13	안덕면	4.7	6.4	11.1	15.5	연동	1.4	1.9	2.2	1.6
14	도남동	4.2	7.8	9.8	15.2	상효동	0.5	1.3	1.5	1.4
15	대정읍	4.7	5.5	10.4	13.6	도남동	0.3	0.0	0.0	0.9
16	강정동	5.9	7.4	13.2	13.3	오등동	0.9	0.9	0.8	0.8
17	삼도이동	9.3	12.7	16.7	13.2	중문동	1.6	0.7	0.8	0.8
18	동홍동	5.6	9.0	12.8	12.0	상예동	0.4	0.8	1.0	0.7
19	이호이동	2.6	1.0	1.2	10.6	법환동	0.4	0.4	0.8	0.6
20	이도일동	2.1	4.7	6.3	9.6	일도일동	0.0	0.0	0.1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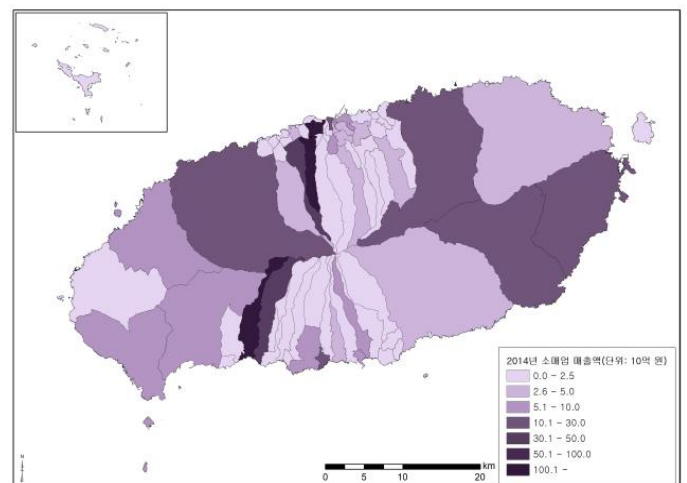


- <그림5-4>의 연도별 · 이용지역별 소매업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카드소비 100억원 이상 지역은, 연동, 용담이동, 노형동, 중문동, 애월읍, 표선면, 법환동의 7개 지역임. 2014년에는 성산읍, 조천읍, 삼도이동의 추가되어 총 10개 지역이 되었고, 2016년에는 17개 지역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됨. 2018년 기준, 카드소비 100억원 이상 지역은, 총 19개 지역임
- 소매업 카드 소비는 2012년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부 동지역과 애월읍, 표선면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14년 이후, 읍면 지역으로 소비 분포가 확대되어, 2018년에는 한경면과 남원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 지역에서 소매업 카드소비가 증가함(\*추자면과 우도면은 섬 지역으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색달동의 소매업 카드 소비 소비액은 2014년 1,000억을 넘었으나, 2015년 외국인 면세점 이전 후에 2016년과 2018년에는 100억원 이하 수준으로 10배 이상 감소함. 호근동의 경우에도, 소매업 카드 소비액이 2012년 100억원을 넘었으나, 2014년부터 50억원 이하 수준으로 절반 이상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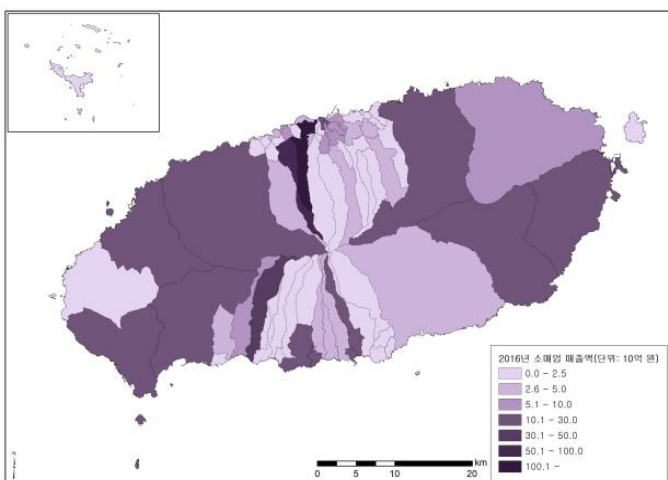
<그림5-4> 연도별 · 이용지역별 소매업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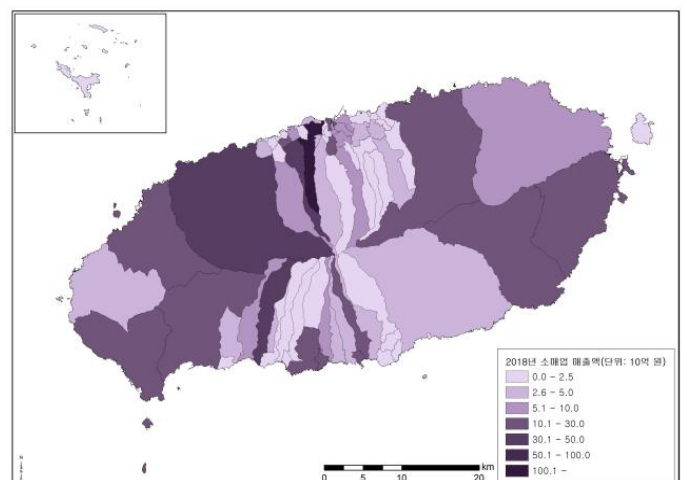
2012년 - 소매업 카드소비



2014년 - 소매업 카드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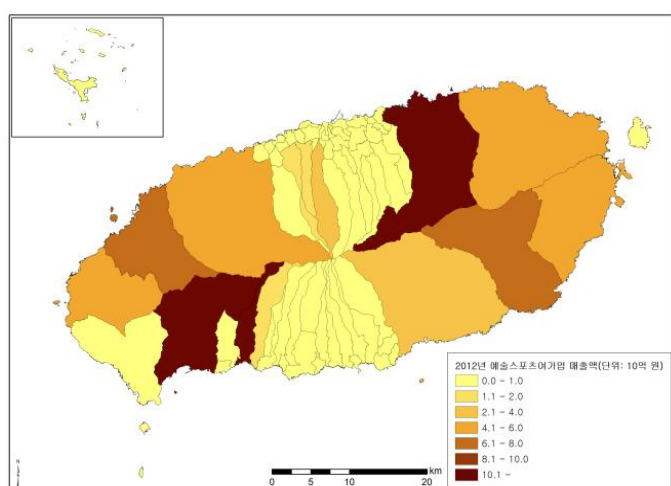
2016년 - 소매업 카드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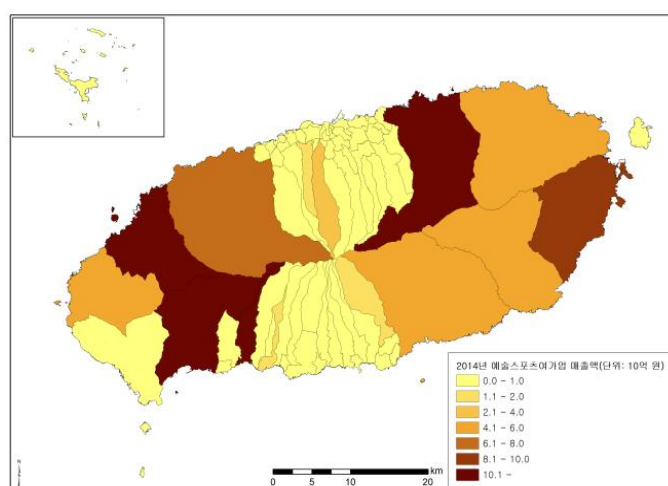
2018년 - 소매업 카드소비

◦ <그림5-5>의 연도별·이용지역별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카드소비액 100억원 이상 지역은 안덕면, 조천읍, 색달동의 3개 지역임. 이 3개 지역의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 소비액은 2018년까지 꾸준히 100억원 이상을 기록함. 성산읍은 2016년에 100억원 이상의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 소비지역이 되었다가, 2018년 다시 100억원 이하 지역으로 전환됨. 한편, 성산읍의 2014년과 2018년 예술·스포츠·여가업의 카드 소비액은 90억원 이상으로 100억원에 가까움. 표선면은 2018년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소비액이 100억원 지역으로 성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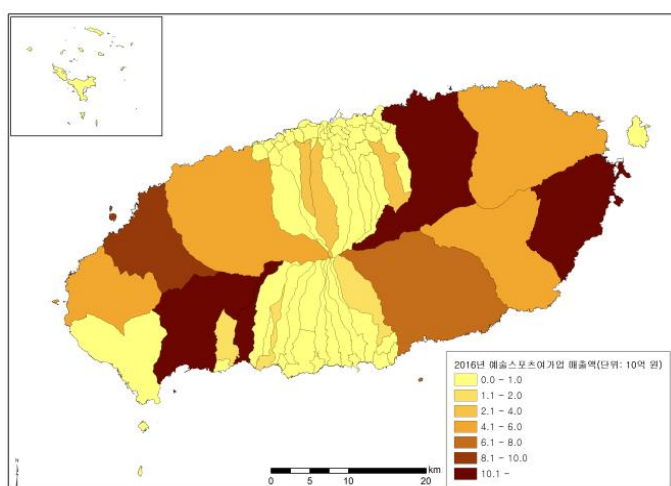
<그림5-5> 연도별·이용지역별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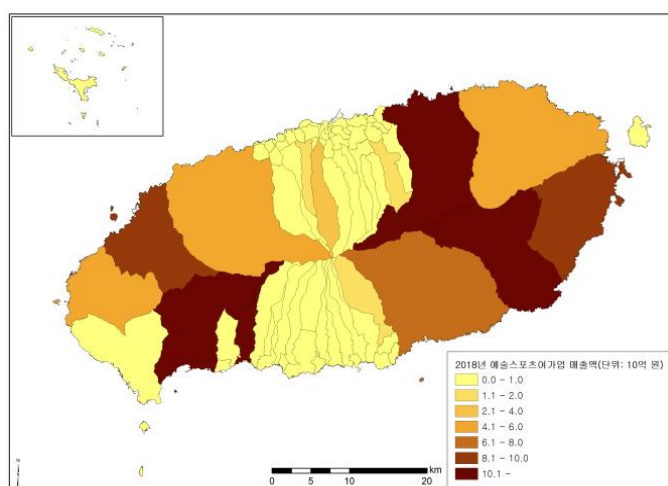
2012년 -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소비



2014년 - 예술 · 스포츠 · 여가업 카드소비



2016년 - 예술 · 스포츠 · 여가업 카드소비



2018년 - 예술 · 스포츠 · 여가업 카드소비

- <표5-6>의 숙박업 카드소비액에서, 2018년 기준, 카드소비액 100억원 이상 지역은 색달동, 연동, 표선면, 삼도이동, 조천읍, 성산읍의 6개 지역임. 숙박업 카드 소비액 100억원 이상 지역은 2012년, 색달동, 연동, 표선면의 3개 지역에서 2014년 삼도이동, 조천읍, 성산읍의 6개 지역으로 늘어나고, 2016년 서귀동, 회천동이 추가되어 최대 8개 지역으로 확대됨.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색달동, 연동, 조천읍, 성산읍, 서귀동 회천동의 숙박업 카드소비액이 감소한 반면, 표선면과 애월읍은 오히려 증가함. 삼도이동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표5-6>의 음식점업 카드소비액에서, 2018년 기준, 카드소비액 300억원 이상 지역은, 연동, 서귀동, 노형동, 성산읍,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색달동, 한림읍, 용담이동의 10개 지역임. 특히, 주요 읍면 지역인, 성산읍, 애월읍, 조천읍, 애월읍, 구좌읍, 한림읍은 2012년 대비 2018년 음식점업 카드 소비가, 최소 3.8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평균 5배 이상 신장하였음. 반면, 주요동 지역의 음식점업 성장 규모는 연동 1.8배, 서귀동 2.5배, 노형동 2.2배로 읍면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연동과 노형동은 음식점업 카드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한림읍은 전년대비 30~40% 수준으로 소비액이 증가함. 안덕면의 경우, 65%의 성장률을 보임. 서귀동, 성산읍, 색달동은 2016년 대비 2018년 카드 소비액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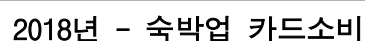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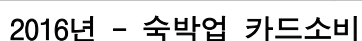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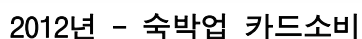
<표5-6> 연도별 · 이용지역별 숙박업 및 음식점업 카드소비 현황

(단위 : 십억원)

순위	숙박업					음식점업				
	이용동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이용동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1	색달동	28.5	97.1	109.2	94.6	연동	41.8	65.5	90.7	74.6
2	연동	15.5	32.8	45.3	34.4	서귀동	21.9	34.4	53.8	53.6
3	표선면	14.9	15.8	17.7	19.5	노형동	23.4	36.6	54.6	51.2
4	삼도이동	3.9	20.5	18.6	18.0	성산읍	12.5	28.2	45.3	47.0
5	조천읍	7.4	14.4	19.8	17.5	애월읍	4.6	12.1	27.9	41.1
6	성산읍	9.0	10.5	14.3	11.0	조천읍	7.3	12.7	28.6	38.3
7	애월읍	2.5	4.7	8.1	9.6	구좌읍	2.8	8.1	24.6	34.9
8	서귀동	2.1	5.0	13.9	9.0	색달동	40.5	26.5	33.1	33.4
9	회천동	8.4	8.9	11.1	8.7	한림읍	5.3	11.2	22.6	32.1
10	중문동	1.3	4.6	8.0	7.1	용담이동	7.1	14.3	25.1	30.0
11	남원읍	5.1	6.2	8.6	6.5	안덕면	5.3	10.7	17.9	29.5
12	강정동	2.0	4.2	5.0	6.1	이도이동	7.6	14.3	20.5	23.6
13	안덕면	0.5	2.2	3.8	4.6	대정읍	5.0	11.4	17.6	20.3
14	한림읍	3.5	5.0	3.7	4.3	중문동	5.5	9.9	18.8	18.4
15	노형동	1.0	2.5	5.8	3.9	표선면	9.3	11.9	18.5	18.0
16	법환동	0.3	2.7	3.2	3.2	용담삼동	10.8	13.7	17.3	14.3
17	이도일동	0.2	3.0	3.0	2.5	건입동	7.4	10.1	13.9	13.6
18	이도이동	0.1	1.2	1.6	2.4	강정동	0.8	1.8	8.0	13.4
19	하예동	0.2	2.1	3.6	2.3	일도이동	3.7	6.8	10.6	10.9
20	대포동	0.3	1.6	1.9	2.2	삼도이동	16.4	6.2	9.3	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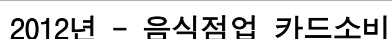


- <그림5-6> 연도별 · 이용지역별 숙박업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 <그림5-7> 연도별·이용지역별 음식점업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 VI 요약 및 시사점

### [요약]

- 2018년 제주관광산업 카드매출액은 3조 6,420억원으로 추계되어, 2017년 3조 6,490억원보다 약 70억원 감소하였음. 내·외국인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2조 8,440억원으로 전년대비 1,330억원(4.5%) 감소하였고, 외국인은 1,260억원(18.9%) 증가하여, 내국인 감소분을 외국인 증가분으로 상쇄시켰음. 2018년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2년 이후 최저치지만, 관광객 1인당 카드매출액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제주관광산업 업종별 신용카드 매출액은, 소매업 1조 5,070억원, 숙박업 2,880억원, 음식점업 7,600억원, 운수업 8,970억원, 여가·스포츠·레저업 1,130억원, 기타업 770억원으로 나타남. 업종별 비중은, 소매업 41.4%, 숙박업 8.0%, 음식점업 20.9%, 운수업 24.6%, 여가·스포츠·레저업 3.1%, 기타업 2.0%임. 카드 매출액 성장폭이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2012년 2,840억원에서 2018년 7,600억원으로 약 2.7배 성장하였음
-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 선거일을 포함하여 휴일로 구분하고,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주중을 평일로 구분하여 제주관광산업 신용카드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평일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저 65.9%에서 최고 68.5%로 67% 내외를 기록함. 신용카드 매출액이 2012년 1조 6,810억원에서 2018년 3조 6,42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동안, 평일의 카드 매출액 비중은 67% 내외 수준을 유지하여, 시간에 따른 큰 변화가 없었음
- 내국인 연령대별 분석의 결과, 내국인 30대와 40대의 카드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6년까지는 20대 이하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2016년 이후에는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2018년 기준, 내국인 전체 카드 소비액 중 20대 이하는 19.0%를, 30대와 40대의 비율은 56.5%를, 50대와 60대 이상은 24.5%를 기록함
- 내국인 성별 분석의 결과,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에서는 여성의 카드 소비가 53.7%로 상대적으로 많고, 결혼 후 가족단위의 여행을 주로 하게 되는 30대부터는 남성의 카드 소비가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가운데, 40대 여성에 의한 카드 소비액은 시간에 따라 감소하지 않은 특징을 보임
- 내국인 거주지역별 분석의 결과, 서울의 카드소비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의 소비비중은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의 소비비중은 증가하고 있음. 2018년 기준, 서울은 전체의 28.2%를 차지하는 중요 지역이나, 소비비중이 2013년 33.2%에서 지속 하락하고 있음.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카드소비 비중이 26~27%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카드소비 비중은 2014년 39.9%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8년 44.1%로 성장함
- 내국인 이용지역별 분석의 결과, 제주시 동·서부와 서귀포시 서부가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도심과 서부는 정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제주시 동·서부와 서귀포시 서부는 최근 카페와 맛집 등이 많이 생긴 지역으로, 생산자 관점에서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투자가 선행되어 관광객의 소비가 증가한 요인도 있음

- 내국인 업종별 · 연령대별 분석의 결과, 국내 경제의 침체 속에 여행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도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비교적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소비활동을 하고 있고,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장년층에게 제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관광지로 선호되고 있음
- 외국인 권역별 분석의 결과, 북미와 유럽이 매력 있는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일본시장도 회복되고 있음.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 비중은 90% 전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사드 이후 79.2%까지 하락한 반면, 북미 · 유럽권의 카드 소비는 2016년 3.6%에서 지속 성장하여 2018년 10.1% 수준에 이름. 일본권의 카드 소비는 2012년 17.7% 이후, 대체로 5% 전후를 기록하다가, 2018년에 8.3%로 회복세로 돌아섬
- 외국인 이용지역별 분석의 결과, 제주도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대중국 의존도는 최저 37.1%에서 최고 69.0%로 제주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도심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카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음
- 외국인 권역별 · 업종별 분석의 결과, 동남아시아권의 카드 소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 유럽권의 여가 · 스포츠 · 레저업의 카드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 면세점 제외 소매업 카드소비 비교 분석결과, 내국인은 면세점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소매업 전반의 성장이 있었던 반면, 외국인은 면세점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내국인 소매업 카드 소비액 중 면세점 비중은 2012년 53%에서 2018년 43%로 낮아졌음. 내국인 소매업 카드 소비액은 2012년 5,090억원 대비, 2018년 1.8배 수준인 9,170억원이나, 면세점을 제외할 경우, 2012년 2,370억원 대비 2018년 2.2배인 5,220억원으로 성장폭이 커짐. 2017년 외국인 관광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매업 카드 소비액 중 면세점 비중은 94%로 전년대비 3% 증가함. 2017년 외국인 소매업 카드 소비액은 5,280억원으로, 2014년 4,280억원, 2015년 4,690억원보다 많지만, 면세점 카드 소비액을 제외할 경우, 2017년 300억원으로, 2014년 520억원, 2015년 540억원보다 적어짐
- 2018년 기준, 500억원 이상 카드소비가 발생한 지역은 연동, 용담이동, 색달동, 노형동, 성산읍, 조천읍, 애월읍, 서귀동, 표선면, 안덕면, 중문동, 한림읍, 구좌읍의 13개 지역임. 카드 소비액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지역의 수는 2012년 5개, 2014년 6개, 2015년과 2016년 각 11개, 2017년 12개, 2018년 13개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내국인 카드 소비 500억원 이상을 기록한 지역은, 2012년 용담이동, 연동, 색달동, 노형동의 4개 지역에서 2014년 성산읍이 추가되어 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2015년에는 조천읍, 애월읍, 서귀동, 중문동이 포함되어 9개 지역으로 늘어남. 2016년에는 안덕면, 표선면이 추가되어 11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2017년에는 한림읍, 2018년에는 구좌읍이 추가되어 총 13개 지역으로 늘어남. 2014년 성산읍을 시작으로, 2015년부터 읍면지역을 내국인 카드소비가 확대되는 모습이 관측됨
- 2018년 기준, 외국인 카드 소비금액 100억원 이상 지역은 연동, 색달동, 표선면, 노형동, 삼도이동의 5개 지역임. 이들 지역은 외국인이 주로 숙박하는 호텔들이 위치한 지역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주요 소비지역임. 외국인 관광시장이 호황이었던 2015년 전후 시기에는 안덕면, 성산읍, 조천읍과 같은 읍면 지역으로 외국인 카드소비가 확대될 가능성이 보였으나, 2017년 사드 이후, 해당지역의 외국인 카드

## 소비가 다시 침체됨

- 소매업 카드소비액에서, 2018년 기준 소매업 카드소비액 상위 10개 지역은 연동, 용담이동, 노형동, 중문동, 애월읍, 표선면, 법환동, 서귀동, 성산읍, 조천읍임. 연동은 외국인 면세점이, 용담이동은 내국인 면세점이 있는 지역으로, 이 두 지역의 2018년 소매업 매출액의 합은 1조원에 가까움. 나머지 지역의 경우, 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이 위치함
-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소비액에서, 2018년 기준 소매업 카드소비액 상위 5개 지역은 안덕면, 조천읍, 표선면, 색달동, 성산읍임. 이들 지역은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스포츠가 가능한 해수욕장, 항구, 해안선 등의 해양 관광자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가짐
- 숙박업 카드소비액에서, 2018년 기준, 카드소비액 100억원 이상 지역은 색달동, 연동, 표선면, 삼도이동, 조천읍, 성산읍의 6개 지역임. 숙박업 카드 소비액 100억원 이상 지역은 2012년 3개 지역에서 2014년 6개 지역으로 늘어나고, 2016년에는 최대 8개 지역으로 확대됨
- 음식점업 카드소비액에서, 2018년 기준, 카드소비액 300억원 이상 지역은, 연동, 서귀동, 노형동, 성산읍,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색달동, 한림읍, 용담이동의 10개 지역임. 특히, 주요 읍면지역인, 성산읍, 애월읍, 조천읍, 애월읍, 구좌읍, 한림읍은 2012년 대비 2018년 음식점업 카드 소비가, 최소 3.8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평균 5배 이상 신장하였음
- 2018년 기준, 음식점업 카드소비 상위 10위권 중 숙박업 카드소비 상위 10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노형동, 구좌읍, 한림읍, 용담이동의 4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노형동은 면세점이 위치한 연동과 용담이동을 제외하고, 소매업 카드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쇼핑과 함께 요식을 하는 것으로 분석됨. 구좌읍과 한림읍은 각각 관광객 숙박선호 지역인 조천읍과 애월읍에 인접한 지역으로, 구좌읍과 한림읍에서 요식을 하고, 조천읍과 애월읍으로 이동하여 숙박하는 것으로 분석됨. 용담이동은 제주공항이 위치한 지역으로, 제주 입·출도시에 음식점업 관련 카드소비가 발생하는 분석됨



## [시사점]

- 2018년 카드 매출액은 3조 6,420억원으로 전년대비 포함세이나, 구성에서 내국인 카드 매출이 4.5% 감소하고, 면세점을 포함한 소매업 위주의 외국인 카드 매출이 18.9% 증가하여 질적수준이 조금 악화됨. 이는 내국인 관광객 수 감소에 따른 카드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항공과 항만 등 내국인 관광객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내국인 관광객을 예년수준으로 유치하고, 카드 매출액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
- 업종별 카드 매출액에서, 성장폭이 가장 큰 업종은 음식점업으로, 2012년 2,840억원에서 2018년 7,600억원으로 약 2.7배 성장하였음. 내국인 위주의 식도락 여행이 활성화되면서 자연경관이 좋은 읍면지역의 음식점업 매출이 증가하였고, 수요 증가를 반영한 읍면지역의 음식점업 창업 증가로 매출액이 더욱 확대되는 승수효과가 발생함. 관광마케팅은 수요견인에 의한 투자확대와 같은 선순환 체제가 경제주체에 의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일주일 중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카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7%로 꾸준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제주가 주말형 휴양지가 아닌, 주중에도 꾸준히 관광객이 입도하는 휴가형 휴양지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계절에 맞게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하고, 365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 20대 이하의 연령대에서 카드 소비액이 증가하고 있음. 인스타, 유튜브 등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맞춤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이 콘텐츠가 소비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비교적 안정적 소득을 바탕으로 제주를 방문하고 소비활동을 하고 있음. 40대 이하의 젊은 세대와 달리, 50대 이상의 장년층에게는 제주는 여전히 매력적인 관광지로서 선호되고 있으므로, 밀레니얼세대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과 함께 이들 세대에 대한 관광콘텐츠 개발도 필요함
- 내국인 카드 소비는 30대 이상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가족단위 여행에서 여행 전반에 대한 비용을 남성이 주로 지불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한편, 20대 이하 여성은 동연령대의 남성보다 카드 소비가 더 많고, 40대 여성에 의한 카드 소비액은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가족단위, 20대 이하 여성, 40대 여성 대상의 카드 연계 프로모션 관광상품 개발을 검토할 수 있음
- 내국인 거주지역별 카드 소비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침체되고, 나머지 지역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제주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서울·경기 제외 지역에서 제주까지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유도할 수 있음
- 내국인의 이용지역별 카드 소비는, 제주시 동·서부와 서귀포시 서부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도심과 동부 지역은 정체되어 있음. 상대적으로 도로망과 교통시설이 불리한 서귀포시 도심과 동부 지역으로 관광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권역별 카드소비 분석결과, 동남아시아권 카드 소비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와 유럽권은 여가·스포츠·레저업 소비를 중심으로 카드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제주관광의 질적성장을 위해 구미·동남아권에 대한 해외관광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분석결과, 제주 도심에서 대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편중되었으나, 이외의 지역에서는 50% 내외였음. 이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 중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중과 유사함. 면세점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은 여전히 제주 관광의 중요한 시장이므로 현재의 중국시장 마케팅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면세점 제외 소매업 카드소비 분석결과, 내국인은 면세점과 상관없이 소매업 카드소비가 꾸준히 내실 있는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외국인은 면세점 카드소비액을 제외할 경우, 2017년과 2018년 소매업 카드소비가 2016년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음. 면세점 중심의 외국인 소매업 소비를 지양하고, 도민에게 관광의 실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지역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내국인의 카드 소비는 읍면지역으로 확대되었으나, 외국인의 카드 소비는 사드 이후, 제주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국한됨. 이는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로 인한 카드 소비액의 전체적인 감소와 관광 편의시설이 국한된 동지역에 대한 개별관광객 집중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외국인 관광객의 읍면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광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소비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골프장을 중심으로 해양 관광자원이 위치한 읍면지역의 예술·스포츠·여가업 카드 소비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읍면지역의 자연경관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레저 스포츠 중심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관광 소득의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용지역별 카드소비 GIS 분석결과, 구좌읍과 한림읍 지역에서 식사를 하는 관광객은 조천읍과 애월읍에서 숙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관광객 이동동선을 고려한 야간관광 활성화 등의 관광마케팅을 검토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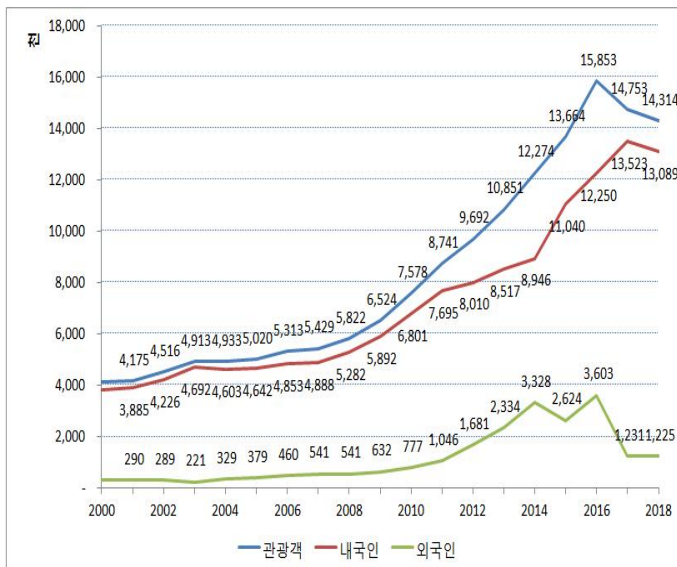
## 부록1. 연도별 관광객 입도통계(2000년~2018년)

◦ 제주입도 관광객 수(2000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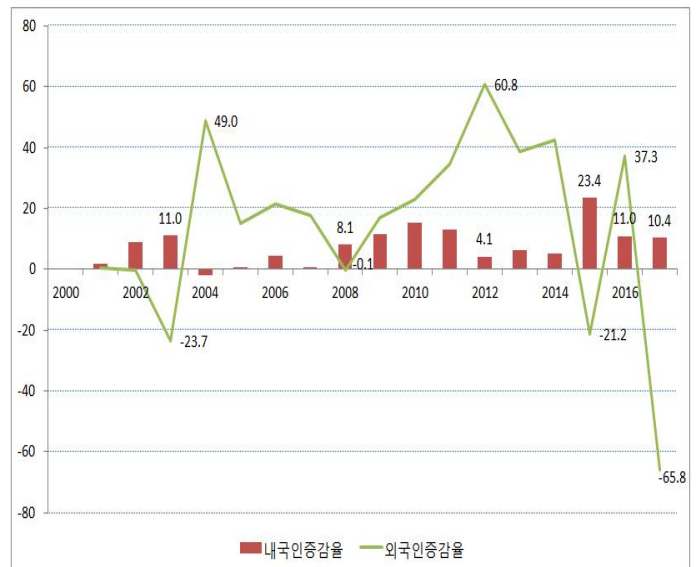
연도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_소계	개별	단체			
				단체_소계	부분패키지	패키지	
2000년	4,110,934	3,822,509	-	-	-	-	288,425
2001년	4,175,246	3,885,196	-	-	-	-	290,050
2002년	4,515,515	4,226,019	-	-	-	-	289,496
2003년	4,913,393	4,692,376	3,252,282	1,440,094	-	-	221,017
2004년	4,932,512	4,603,297	2,950,464	1,652,833	-	-	329,215
2005년	5,020,275	4,641,552	2,949,410	1,692,142	-	-	378,723
2006년	5,312,998	4,852,638	3,221,138	1,631,500	-	-	460,360
2007년	5,429,223	4,887,949	3,368,758	1,519,191	-	-	541,274
2008년	5,822,017	5,281,501	3,537,098	1,744,403	-	-	540,516
2009년	6,523,938	5,891,584	4,154,377	1,737,207	-	-	632,354
2010년	7,578,301	6,801,301	4,955,247	1,846,054	-	-	777,000
2011년	8,740,976	7,695,339	6,238,306	1,457,033	-	-	1,045,637
2012년	9,691,703	8,010,304	6,600,638	1,409,666	-	-	1,681,399
2013년	10,851,265	8,517,417	7,268,694	1,248,723	-	-	2,333,848
2014년	12,273,917	8,945,601	6,781,586	2,164,015	1,444,508	719,507	3,328,316
2015년	13,664,395	11,040,135	8,424,404	2,615,731	1,750,211	865,520	2,624,260
2016년	15,852,980	12,249,959	10,153,104	2,096,855	1,281,249	815,606	3,603,021
2017년	14,753,236	13,522,632	11,304,702	2,217,930	1,436,918	781,012	1,230,604
2018년	14,313,961	13,089,129	10,394,182	2,694,947	1,740,481	954,466	1,224,842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입도통계 재가공

◦ 그래프 : 제주입도 관광객 수(2000년~2018년)



[제주입도 관광객 수(2000~2018)]



[제주입도 관광객 증감율(200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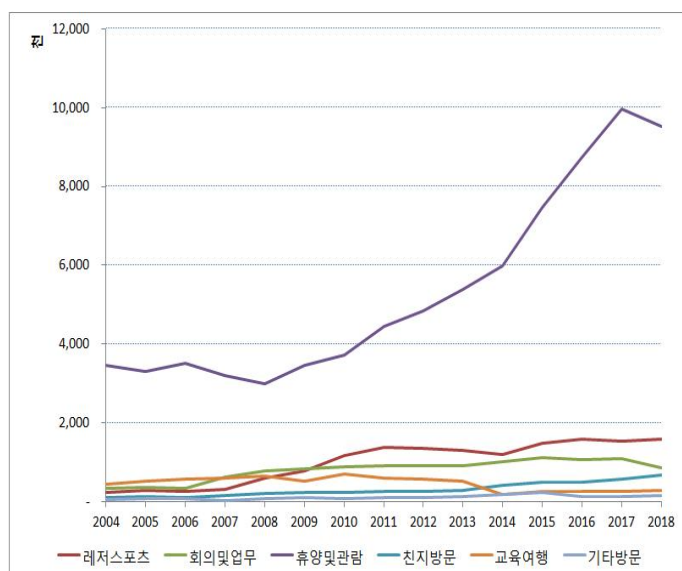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입도통계 재가공

◦ 여행목적별 제주입도 내국인 관광객 수(2000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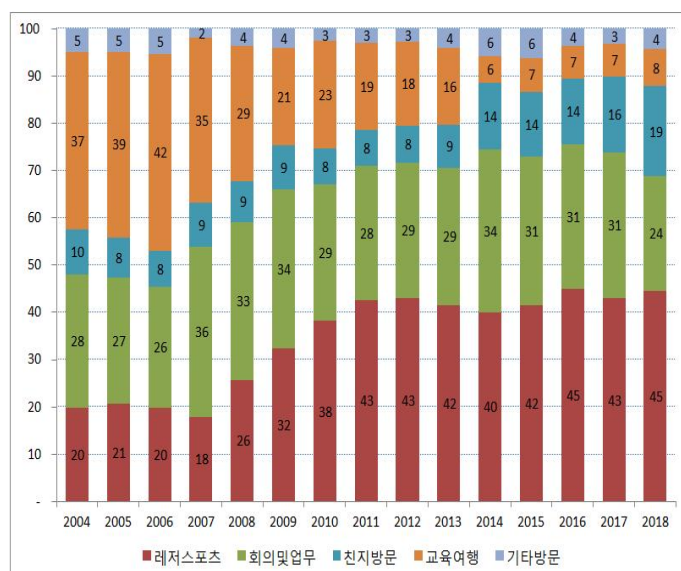
연도	내국인						
	합계	레저스포츠	회의및업무	휴양및관광	친지방문	교육여행	기타방문
2000년	3,822,509	-	-	-	-	-	-
2001년	3,885,196	-	-	-	-	-	-
2002년	4,226,019	-	-	-	-	-	-
2003년	4,692,376	-	-	-	-	-	-
2004년	4,603,297	228,002	328,075	3,446,794	110,092	432,555	57,779
2005년	4,641,552	276,189	360,155	3,298,970	113,901	527,809	64,528
2006년	4,852,638	264,827	345,786	3,508,968	102,335	558,962	71,760
2007년	4,887,949	303,908	609,239	3,191,860	157,850	591,843	33,249
2008년	5,281,501	589,839	770,222	2,982,252	198,663	656,990	83,535
2009년	5,891,584	786,769	819,208	3,458,777	225,913	504,605	96,312
2010년	6,801,301	1,179,251	890,721	3,715,142	233,036	704,629	78,522
2011년	7,695,339	1,386,454	918,860	4,445,336	248,226	603,094	93,369
2012년	8,010,304	1,359,390	911,611	4,844,425	247,018	558,125	89,735
2013년	8,517,417	1,306,128	906,120	5,378,616	290,360	508,946	127,247
2014년	8,945,601	1,182,187	1,018,386	5,991,567	414,353	170,273	168,835
2015년	11,040,135	1,486,387	1,127,550	7,458,554	491,424	257,395	218,825
2016년	12,249,959	1,579,517	1,072,690	8,739,407	489,435	242,915	125,995
2017년	13,522,632	1,529,052	1,101,377	9,963,505	569,149	243,525	116,024
2018년	13,089,129	1,591,117	866,410	9,517,324	680,493	281,606	152,179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입도통계 재가공

◦ 그래프 : 여행목적별 제주입도 내국인 관광객 수(2000년~2018년)



[여행목적별 내국인 관광객 수(2000~2018)]



[여행목적별 내국인 관광객 상대비율(2000~2018)]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입도통계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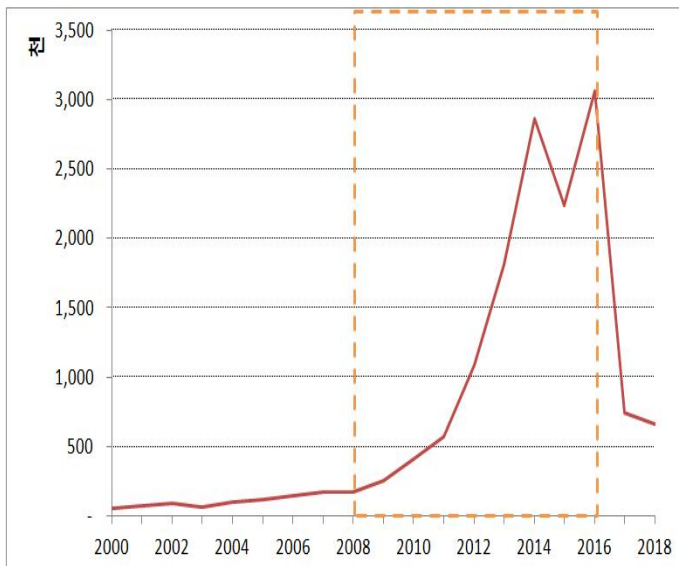


◦ 국적별 외국인 관광객 수(2000년~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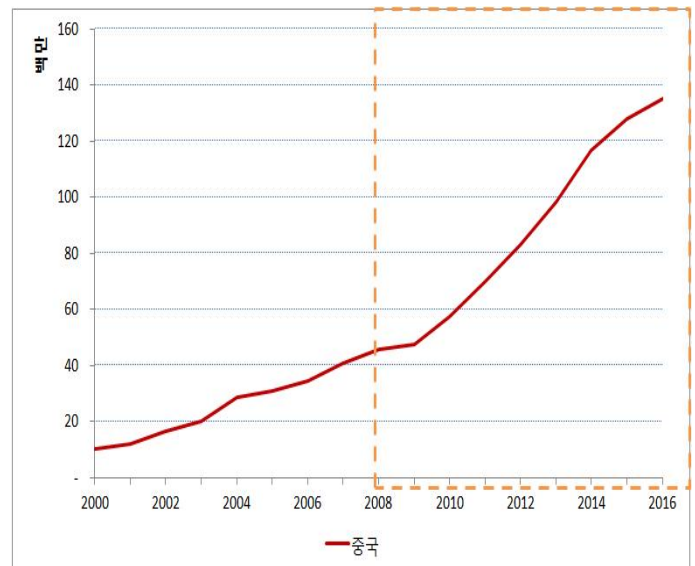
연도	합계	아시아											서구		
		소계	일본	중국	홍콩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아시아기타	소계	미국	서구기타
2000년	288,425	-	147,358	57,236	28,777	2,294	9,710	-	-	-	-	-	-	11,216	-
2001년	290,050	-	147,525	71,650	20,329	2,414	9,506	-	-	-	-	-	-	10,935	-
2002년	289,496	-	134,120	92,805	7,838	940	11,363	-	-	-	-	-	-	12,005	-
2003년	221,017	-	98,950	69,671	5,173	9,893	8,762	-	-	-	-	-	-	10,753	-
2004년	329,215	-	136,202	101,236	7,609	21,435	13,472	-	-	-	-	-	-	17,518	-
2005년	378,723	-	149,361	115,199	8,582	39,552	13,841	-	-	-	-	-	-	18,528	-
2006년	460,360	407,199	182,811	142,912	8,376	57,358	18,167	10,746	-	-	-	5,859	32,609	19,329	13,718
2007년	541,274	502,306	183,240	176,878	8,683	93,169	21,699	10,270	-	-	-	8,367	38,968	20,478	18,490
2008년	540,516	485,534	177,459	174,902	11,365	67,993	28,580	13,220	-	-	-	12,015	54,982	23,349	31,633
2009년	632,354	566,374	183,168	258,414	15,079	41,480	32,727	14,806	-	-	-	20,700	65,980	23,712	42,268
2010년	777,000	727,039	187,790	406,164	11,793	40,867	31,405	23,550	-	-	-	25,470	49,961	19,895	30,066
2011년	1,045,637	971,784	173,700	570,247	26,601	31,661	55,927	53,045	-	-	-	60,603	73,853	26,648	47,205
2012년	1,681,399	1,596,018	180,357	1,084,094	38,980	51,012	63,818	76,192	-	-	-	101,565	85,381	25,143	60,238
2013년	2,333,848	2,252,776	128,879	1,812,172	39,761	38,890	56,622	74,956	-	-	-	101,496	81,072	21,439	59,633
2014년	3,328,316	3,257,696	96,519	2,859,092	28,405	32,189	46,307	63,953	36,850	31,914	-	62,467	70,620	19,812	50,808
2015년	2,624,260	2,532,148	59,233	2,237,363	22,732	17,839	29,620	39,892	22,707	26,806	-	75,956	92,112	16,898	75,214
2016년	3,603,021	3,459,242	47,997	3,061,522	44,757	38,046	50,566	66,207	33,707	25,008	44,472	46,960	143,779	33,942	109,837
2017년	1,230,604	1,084,731	55,359	747,315	48,952	28,994	33,732	49,524	23,065	24,306	23,790	49,694	145,873	32,651	113,222
2018년	1,224,832	1,102,305	86,634	666,120	49,085	51,331	28,572	68,353	23,541	30,233	54,715	43,721	122,527	31,270	91,257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입도통계 재가공

◦ 그래프 : 제주입도 중국 관광객 수와 세계 중국인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 비교



[제주입도 중국 관광객 수(2000~2018)]



[세계 중국인 아웃바운드 여행객 수(2000~2016)]

\* 출처 : (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입도통계 재가공, (우) UNWTO

## 부록2.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주요 지표 요약

### ◦ 관광객 체류일수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내국인	5.06일	5.08일	4.12일	4.49일	3.95일
외국인	3.02일	4.45일	4.13일	4.39일	4.90일

### ◦ 1인당 평균 지출비용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내국인	65.2만원	57.2만원	59.2만원	54.0만원	51.5만원
외국인	1,782.7\$	1,520.3\$	1,466.5\$	1,214.9\$	1,339.4\$

\* 2016년까지는 1인당 지출비용을 설문하였으나, 2017년부터 총지출비용과 지출인원을 설문하고 1인당 지출비용을 산출함. 2017년 지출비용 감소는 이와 같은 설문방법 변경도 일부 반영됨

### ◦ 관광객 만족도(5점 만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내국인	3.85점	3.99점	3.94점	4.06점	4.10점
외국인	3.94점	4.10점	4.06점	4.14점	4.07점

### ◦ 여행형태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내국인	개별	93.5%	89.0%	92.8%	92.5%	95.2%
	패키지	4.1%	8.7%	5.0%	5.4%	4.0%
	에어텔	2.3%	2.3%	2.2%	2.1%	0.8%
외국인	개별	24.6%	46.7%	40.8%	75.5%	86.8%
	패키지	70.9%	50.2%	57.0%	22.3%	10.8%
	에어텔	4.5%	3.1%	2.2%	2.2%	2.4%

### ◦ 재방문율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내국인	71.4%	63.7%	67.4%	69.8%	68.7%
외국인	11.7%	13.4%	12.3%	19.8%	32.9%

\* '2회 이상 방문의 경우'를 재방문한 것으로 보고 산출함



제주관광공사 연구조사센터는 2017년부터 제주관광 통계관리와 기초연구, 국제관광 정책 네트워크(섬관광정책포럼 사무국 운영) 등의 정기업무와 제주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현안 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인 : 박 홍 배

발행처 :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덕로 23 제주웰컴센터)

담당부서 : 연구조사센터